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 한인뉴스

9 2019

VOL. 279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http://www.innekorean.or.id)

**SAMSUNG**



[www.GalaxyLaunchPack.com](http://www.GalaxyLaunchPack.com)

Customer Service: 0800-112-8888 (bebas pulsa) (021) 5699-7777 (hunting)



[www.samsung.com/ID](http://www.samsung.com/ID)



Samsung Indonesia



SamsungID



Samsung\_ID



Samsung Indonesia

Image simulated.



# MAKE IT YOURS

## go korean

당신만을 위한 프라이빗한 공간,  
 파워 슬라이딩 도어에서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까지,  
 코스모 스위트에서  
 특별한 아늑함을 느껴보세요.

**KOREAN AIR** SKYTEAM

GoKorean.KoreanAir.com



자카르타 ↔ 서울 매일 운항  
 덴파사르(발리) ↔ 서울 매일 운항

50 years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Pioneering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Oil and Gas in West Madura Offshore  
Since 1981*



## 대한민국 해외자원개발의 선구자!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유전개발 업체로  
인도네시아 마두라광구 탐사,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KODECO ENERGY**

Talavera Office Park 10<sup>th</sup> fl. Jl. Letjen TB Simatupang No. 22-26  
Jakarta 12430 T +62 21 2765 1559 E admin@kodeco.co



2019년 8월 25일, Saranghae Merdeka 5K 마라톤, 걷기 대회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비둘기를 날리는 박재한한인회장(좌)과 김창범대사(우)

# contents

2019. 9. 통권 279호

- 07 호기심 2 <편집국>
- 08 논설위원 칼럼-서부 이리안 해방운동의 영웅 <김문환>
- 11 제 74주년 광복절 경축식
- 12 적도의 대한독립열사와 위안부 <이태복>
- 16 Saranghae Merdeka 5K 마라톤- 걷기대회
- 18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 편찬위원 위촉장 수여
- 19 제2회 KORAS CHAMPIONSHIP
- 20 이해창 경제칼럼-화폐전쟁의 서막
- 23 안전문자 공지 시스템 가동 임박
- 24 배동선작가의 [인도네시아현대사]23
- 28 월간 뉴스 브리핑 <자카르타 경제신문>
- 32 편리해진 대중교통 <이수진>
- 35 제5대 코참출범식
- 36 자카르타 맛집 탐방 <주윤지>
- 38 9월의 행복에세이- 코코넛 빗자루의 교훈 <문인기>
- 41 '자바의 꿈' 출판 기념회
- 42 문예총 이야기
- 43 재인니한인회, 레드엔젤과 MOU
- 44 SAMBAL 만들기
- 46 나 바 수 <민선희>
- 50 세상을 구하는 아이들 <김재이>
- 53 World HANSIK Festival
- 54 '막스 하벨라르' 출판 기념회
- 56 '독립전쟁에서 한국인들의 역할' 세미나
- 58 Teman Korea (TeKo) Nang Jawa!
- 58 A STAR IS BORN <편집국>
- 60 인도네시아 토지법 277
- 63 우리는 Team FIT Bersama
- 64 2019 K-POP 아카데미와 국악 강좌 작품 발표회
- 65 Pancoran 사람들 No.8
- 70 생활정보

월간 한인뉴스 9 2019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김문환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수진, 이영미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행사때마다 뵙는 얼굴, 오늘도 나오셨네요.  
새벽부터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 김일순 (한바패):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참석하고 있지만 항상 기분 좋고 때로  
는 몽클하고 또 뿌듯합니다.  
외국에서 재외동포로 살면서 한인동포라면  
모두가 애국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그런 것이 잘 뿌리 내  
렸으면 좋겠어요.



### Saranghae Merdeka 5K 마라톤, 걷기대회에서 열정 가득한 한인동포를 만나 인터뷰를 청했다. - 2019년 8월 25일

아까부터 왠지 여기 계신 분들 중 제일 신나 보  
이세요. 눈길을 끌기에 참가 소감을 묻고 싶어  
졌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경수 (비자관련업):  
노후 준비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와서 참석  
한 첫 행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뜻깊고 감동적이네요. 이렇게 이  
른 아침에 많이 모인 한인동포와 인도네시  
아 사람들 그리고 잘 준비된 행사를 보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직원과 그  
딸이 함께 왔어요. 저들도 많이 좋아하는 걸  
보니 신이 나지 않을 수 없죠~!





김문환/논설위원

## 서부 이리안(Irian Barat) 해방운동의 영웅

교도민주주의 체제하의 수카르노 정부는 소련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동서 양 진영의 냉전시대의 경쟁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서부 이리안 해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 당국이 잠정적인 과도통치를 시행한 후 곧 서부 이리안의 주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어기게 되자 ‘서부 이리안에 대한 네덜란드의 통치야욕을 드러낸 신식민주의(新植民主義) 기도’라고 단정한 수카르노는 이를 기필코 분쇄할 것이라 다짐하였으니, 이 주장은 월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와 같은 국제적인 명분에도 부합하였음은 물론 국내에서도 이슬람계와 공산당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

수카르노 정부하의 극단적인 국수주의 단체들에 의해 네덜란드인들에 대한 추방령과 자산몰수라는 물리력까지 동원되자 네덜란드 정부는 이 지역에 ‘파푸아 정부’를 세워 4만8천명이나 되는 자국민의 이주지로 삼겠다는 대응책으로 맞서자, 이에 격분한 수카르노는 독립 15주년이 되는 1960년 네덜란드와 국교를 단절하기에 이른다. 양국간의 외교채널이 마비되며 무력행동만이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카르노 정부는 군사적인 지원보다는 경제부흥에 역점을 두는 미국에 대해 보라는 듯이 소련에 접근하여 흐루시초프를 비롯하여 동구권 국가들의 적극적인 군사지원을 얻는데 성공한다. 1960년 12월 국군총참모장인 나수피온 장군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9대의 헬리콥터, 70대의 미그전투기, 22대의 전폭기, 12척의 잠수함 등 다수의 군사장비를 장기상환 조건으로 받아낸 것이다. 이 시기에 서부 이리안 민족대표들은 그들의 장래 문제에 대한 선택의 갈등을 겪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인도네시아에 편입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수카르노 정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이를 호재로 활용하여 국내외적으로 정국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이제 네덜란드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은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었다. 1961년 12월 19일 수카르노는 족자카르타에서 서부 이리안(West Irian)을 해방시키기 위한 3개항의 선언서(Trikora; Tri Komando Rakyat)를 천명한다.



1. 네덜란드의 허수아비 파푸아 정부 결성을 분쇄하라
2. 인도네시아 국기(적백기)를 파푸아 영공에 게양하라
3. 인도네시아 독립과 주권방어에 충력을 기울여라

그리고 1962년 1월 2일자로 ‘서부 이리안 해방 작전사령부(Mandala 작전)’를 발족시키는 대통령령을 선포하였다. 작전총사령관엔 육군 제1참모차장이던 수하르또 소장, 해군 사령관엔 수도모(Sudomo) 대령, 공군 사령관엔 와띠메나(Wattimena) 대령 그리고 참모장엔 아흐맛 따헤르(Achmad Taher) 대령이 임명되었다. 작전이 개시되기 직전 서부 이리안 원주민 출신 경찰대원들을 태우고 먼저 침투하려던 3척의 선단이 갑자기 네덜란드 해군과 공군의 집중포화를 받아 그 중 ‘마잔 뚜똘(Macan Tutul)호’가 격침되어 해군 참모차장 요스 수다르소(Yos Soedarso) 대령(제독으로 추서)이 전사하였고 다른 두 척에 타고 있던 수도모(Sudomo) 대령 일행은 가까스로 화를 면하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서부 이리안 군사작전의 D-Day는 앞당겨지게 되었다. 한편 수하르또 사령관은 5번째 출산을 며칠 앞두고 진통하고 있는 띠엔(Tien) 부인 곁에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이제 본격적인 주력부대의 비악(Biak) 상륙을 앞두고 1962년 7월 5일 드디어 옥동자가 태어났다. 수하르또 장군은 기쁨에 넘친 나머지 이번 이리안 해방작전이 성공되기를 기원하며 그 작전명을 넣어 후또모 만달라 뿌트라(Hutomo Mandala Putra)라고 작명하였다.

1961년 중반 미국 특수전 교육을 마치고 특전사 본대로 복귀한 베니 대위는 이리안 군사작전의 공수 선임지휘관으로 임명되었다. 미국교육 시 동료였던 램리 대위(Ramly; Pertamina 총재 역임) 및 운똥 대위(Untung bin Sjamsuri, 대통령 경호대대장으로 발탁)



사진설명 1; 베니 무르다니 특공대장(당시 대위)의 침투지역이었던 머라우케(Merauke) 지역에 건립된 낙하동상

도 함께 이 작전에 참여하였다. 베니 대위는 206명의 특수 타격대(Detasemen Pasukan Khusus)를 이끌고 최선봉으로 머라우께(Merauke) 정글에 낙하하였다. 그곳엔 약 200명의 네덜란드군과 2,000여명의 네덜란드 민간인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Operasi Naga’라는 작전명이 부여되었던 이 머라우께 낙하작전을 지휘했던 베니의 용맹스런 무용담이 군수처부에 알려지자 하루 빨리 그를 특진시키기 위해 작전 도중에 소령 계급장을 작전지역에 낙하시키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소련의 군사지원에 힘입어 서부 이리안 해방작전이 성공의 문턱에 이르자 소련에 모든 주도권이 넘어가 인도네시아가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미국은 뒤늦게나마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을 자카르타에 특사로 파견하는 등 현장외교를 병행하여 유엔을 주무대로 삼아 외교, 군사적으로 궁지에 몰린 네덜란드 정부에 압력을 넣어 유엔의 중재를 수락하도록 유도하였다. 우탄트(U Thant) 유엔사무총장은 미국 외교관 엘스위스 병커에게 중재를 요청하여 서부 이리안을 10월 1일부로 유엔관리로 두고 1963년 5월 1일자로 인도네시아령으로 정식 편입하기로 결실을 맺음으로서 ‘뉴욕조약’으로 알려진 이 협정은 1962년 8월 15일에 양국 외무부 장관인 수반드리오(Subandrio)와 죠셉 런스(Joseph Luns) 간에 뉴욕에서 서명되었다.

머라우께가 평정된 직후 베니는 밤방 수빠노 대위에게 임무를 넘기고 홀란드리아(Hollandia, 현 Jayapura)에 본부가 있는 서부 이리안 특공부대장으로 영전되어 갔다. 그리고 작전이 종료된 1962년 11월 10일 베니는 머라우께 작전 시 희생된 16명의 직속부하들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식을 주관하였다. 이 작전기간 중 서부 이리안 전체 작전지역엔 1419명의 정부군이 낙하하였으며 그 중 216명이 전사하였고 296명은 포로가 되었으나, 반면 네덜란드 해병대 1500여명을 포로로 잡았다.

1963년 2월 19일 수카르노 대통령은 대통령 궁에서 만달라 작전 총사령관인 수하르토 소장이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최고 무공훈장인 ‘빈팡 삭띠(Bintang Sakti)’를 베니 소령의 가슴에 직접 달아주며 알듯 모를 듯 몇 마디를 베니의 면전에서 속삭이고 있었다. “당신은 이제 국가의 영웅이야, 그리고 나이도 찼으니 혼사도 치뤄야지, 내가 좋은 배필을 추천하지...” 아마 이런 류의 말씀이었는지 모른다. 다음 날 영웅탄생을 알리는 일면 톱기사가 모든 일간지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베니는 진정 국민적 영웅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영웅이 된 총각군인 베니 소령은 미혼여성들로부터 흠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 수카르노도 베니를 그냥 놓아둘 리가 없었다.



## 제 74주년 광복절 경축식



제 74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8월 15일 대사관 강당에서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과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주최로 열렸다.

한인사회 주요인사 및 대사관 관계자, 각계각층의 한인동포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김창범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대독한데 이어 광복절의 노래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창범 대사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며 “첫째,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한다”라며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며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힘들었던 어제와 다른 개념을 제시했다.

또한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이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이며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



려가는 우리의 포부이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거래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일제의 고통이 희미해지고 일본이 그때와는 다른 상대로 여겨질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할 7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여전히 오래된 매뉴얼로 우리를 대하고 있고 자신들의 국제관계 지도에서 한국의 포지셔닝을 잘못잡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한편으로 이제 차분히 갈등과 싸움을 부추기는 세력을 피해 조금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 한 쪽에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함께 고통 받는지가 명확해졌다”고 말하고 국가의 번영을 위한 각자의 자리에서의 자발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김우재 한인회명예고문의 선창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힘차게 외치며 경축식은 마무리됐다.

## 적도의 대한 독립 열사와 위안부 (인도네시아 한인 진출역사)



스마랑에서 41km떨어진 수모위노 보병 훈련장 해발 2.520 웅아랑산 중턱 반띠르 고원에 있다

글/이태복 시인.사산자바 문화연구원 원장



### 네번째 이야기

#### 일제의 조선 포로감시원과의 계약 위반과 조선 군속들의 항일 감정

일제의 지원이라는 이름하에 반강제로 징집되어 온 민영학을 비롯한 조선청년들은 1942년 6월에 시작하여 2년 계약으로 자바땅에 왔기에 1944년 6월 이들은 임기가 만료 되었지만 일본군들은 그들을 귀향시키지 못했다. 9만명의 연합군 포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턱없는 인력 부족으로 귀향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일제는 약속 기한이 경과된 후 아무 해명도 없이 포로 감시원과 50엔의 월급을 지급하는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에서 이제는 지배자로 무한정 노역을

시키고,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시키는 등, 인간의 기본 자유마저 박탈하는 본성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런 배신감에 조선청년들은 일본군속으로서 마음 이탈이 시작됐다.

조선청년들의 마음이탈은 적극적 행동 투쟁으로 이어지며 근무지에서는 명령 불복종과, 밤에 철책을 넘어 외출하기, 상관명령 우습게 여기기 등의 방법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제가 연합국에게 패하는 것을 본 자바섬에 있던 조선인들은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여 저항하고자 하였다.

에초부터 독립의 길을 찾기 위해 위장 지원을 한 투사들 외에 일반 응모자와 강제 징집된 조선인들은 이때부터 노골적 반일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를 인식한 일본은 수습책을 강구하였다. 조선인들의 이탈 행동의 실례는 이리했다. 보고르 농장을 감시하는 조선인들을 독보엽전(獨步葉錢, 우리민족의 별명)이라 했는데 이들이 철책을 넘는 무단 외출의 빈도가 잦았다. 이에 일본군들은 철책에 전류를 가해 사무실에서 자동으로 벨이 울리게 장치하지만 독보엽전들은 철사 토막으로 전선을 방전시켜 밤새도록 벨이 울리게 하여 분견소장의 화를 극도로 돋구어 놓곤 했다. 일본군 골탕먹이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노골적 투쟁으로 밤마다 비상소집 없는 날이 없었다. 하루는 의장을 완비하여 비상소집으로 정렬시킨 후에는

“너희들은 도대체 개만도 못하니 어디다 쓰겠는가? 개도 ‘위리’ 하면 오고 ‘저리 가’ 하면 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겨 먹은 인간들이기에 한번 애기한 것을 못 알아 듣는가? 너희는 차라리 개 밀에 따라 다니는 것이 나을 것인데 잘못 태어난 것이 아닌가 싶다.” 는 등 차마 들을 수 없는 욕과 천

대 무시를 받았다. 서서 듣기만 해야 하는 독보들은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이렇게 비상소집 당하는 날 밤은 가상적(假想敵)을 설정하여 삼 개 분대로 나누어 방어 훈련을 하는데 농장에서 키우는 바나나와 파파야 나무를 꺾어 부리뜨리는 것으로 대장(分遣所長)에게 욕 먹어서 생긴 분을 풀었다.

다음날 아침 조회에 조장이 점호를 받으러 왔는데 반장이 심드렁한 소리로

“차렷, 우로 나란히, 경례.” 하자 모두 훈련도 한번 받아 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구불구불 제멋대로 정렬하여 경례를 하였다.

“번호.” 하고 인원 파악 점호의 호령을 내렸으나 동지들은 킬킬거리면서

“개갱, 갱.”

“왕왕.”

“광, 광.”

“멍멍.” 등 제멋대로 개 흉내를 내어 조장이 점호를 받을 수 없었다.

조장이 어안이 빙빙하여 무슨 일이냐 물을때면 “



수모위노 보병장은 얼마전 까지만 해도 군 야영장으로 사용하다 이제는 학생들의 야영장으로도 쓴다

사진  
자바문화연구원



반동의 연합군 포로 감시원 수용소 현재 감옥으로 쓰고 있다

우리가 깨만도 못 하다가에 깨만큼이라도 되어 보려고 개소리로 답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한편, 반동에서는 무로이경부(宝井警部)가 사소한 감정으로 동지 박상준(별명 아히루[집오리] 部長)를 서양인 억류 부녀자 면전에서 구타하여 민족적 모욕감을 주었다. 그러자 박창원, 임현근을 비롯한 전원이 무로이 경부를 집단 구타하였다.

지휘계층은 이런 사상적 대립과, 집단행동을 막을 길이 없어서 골치를 앓다가 재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스마랑의 암바라와 군에 있는 수모위노에 교육장을 만들어 불순 분자의 재교육을 시작하였다. (안승감 자서전 인용.註, 무로이 경부 구타사건은 당시 억류소 통역 보만 오다니 여사가 증언)

## 독립열사들의 기회

1944년 연말이다.

조선독립을 꿈꾸며 암암리에 뜻을 나누던 동지들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전황은 일본군에게 절망적으로 되어 갔고 카이로 선언도 발표되었다.

포로들도, 조선인 군속들도 단파방송, 현지의 한일조직, 더러는 연합군 비행기가 뿌리는 뼈라를 통해 사태 변화를 알고 있었다.

일본군의 불안은 커져갔다. 연합군이 상륙할 때 현지 항일 게릴라의 후방교란이나 포로들의 반란은 우려의 대상이었다. 일본군은 이런 불안에 대비해 조선인 군속 재 훈련를 시켰다.

우선 불온하다고 지목된 2백명의 조선인 군속이 1차교육대상이었다. 교육은 1944년 9월부터 석달간 실시 되었다. 이것은 독립 운동을 하고 있는 이활을 비롯한 동지들에게 좋은 기회였다.

## 고려 독립청년당 조직에 기회가 부여될 일제의 조선군속 사상 개조 출현

일본의 조선인 연합군 포로 감시원의 계약이 끝나고도 조선 청년들을 귀향 시키지 않자 조선 청년들이 동요하는 걸 일본군속으로서는 조선청년들의 정신이 해이하다고 생각해 일본은 조선인 청년들을 사상 개조 시키는 일에 돌입했다.이를 위해 1944년 9월부터 스마랑에서 41km 떨어진 수모위노 교육대(보병 훈련장)에서 문제가 많다고 판



찌마히 연합군 포로 감시원 현재 군부대

단되는 조선 청년들을 모았다. 편입된 동지는 반  
 동에서 무로이 경부 구타에 앞장섰던 임현근, 오  
 은석, 박창원, 백문기 등이었고 바타비아, 보고르,  
 스마랑, 족자카르타 등에서는 이익관, 김현재(金  
 賢宰), 이상문(李相汶), 조규홍(曹圭鴻), 손양섭  
 (孫亮燮) 등이었다. 소위 불순분자들을 모조리 입  
 대시켜서 정신개조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훈련의 가혹함과 엄격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  
 다. 티 하나, 개어 놓은 옷의 구김살 하나까지 간섭  
 을 하고 사람을 기계화시켰다. 하지만 훈련이 엄  
 할수록 동지들에게 애국심은 더 깊어지고 반일감  
 정은 더 굳어졌다.

---끝---



게릴라전을 위해 파놓은 반동의 일본 동굴

# 한국과 인도네시아, 우정과 평화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가자



## ‘많은 사람이 함께 걸으면 길이 된다’

8월 25일,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박재한)는 한-인니친선협회와 함께 74번째 광복절을 맞이하여 한-인니 양국의 독립기념일을 함께 되새기고 축하하는 “Saranghae Merdeka 5K 마라톤-걸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 광복기념 마라톤 - 걸기대회, 2부 광복경축행사 및 축하공연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른 아침 5시 반부터 스나얀 동쪽 광장(술탄호텔 메인로비)에 모여든 참가자들은 약 1시간 후 출발하여 한바패의 장단에 맞춰 행진했다.



김창범 대사는 “이런 뜻 깊은 행사를 통해 더욱 서로의 우정을 다지고 양국의 평화를 기원하자”라며 참여한 많은 인도네시아인들과 한인동포를 환영했다.

박재한 회장은 “조코위 대통령께서 지난 8.16 국정연설에서 강조하신 Visi Indonesia Maju 라는 진보하는 인도네시아가 실현될 수 있기를 우리도





간절히 바란다”며 “한인동포와 인도네시아인이 서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응원하며 공동 번영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한마음으로 기원하는 이 행사가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2부 축하공연에는 태권도공연, 인도네시아전통춤, 당뚝공연, 맥케이 김의 K-pop 무대, 경품추첨 등의 순서로 성황리에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후원사 게재: 본지 69페이지)



#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 편찬위원 위촉장 수여



발표자: 배동선 공동총괄편찬위원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재인도네시아한인회에서는 한인 100년사 편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더불어 편찬위원회 5차 회의를 가졌다.

박재한 편찬위원장은 이후의 자료수집에서 집필과 편집까지의 모든 작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김문환 대표 집필자는 주어진 직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배동선 공동 총괄 위원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강령을 발표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신성철 공동 총괄 위원의 사회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 되어 왔던 세부 목차와 분량 등의 의견들이 오가며 큰 틀을 잡아갔다. 4부로 나눠 각각의 분야별 담당위원을 정하고 한인사회가 함께 하는 한인100년사가 되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 한인뉴스를 통한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이야기 공모와 목차 진행에 따른 문화 탐방 등에 관한 의견이 개진됐다.

## ‘내가 쓰는 한인사’ 공모 안내

개인이 자기 주변 이야기를 편하게 서술하여(단체, 동문회, 교회 등을 중심) 주제에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귀국한 분들도 인도네시아에서의 경험을 서술하며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과 주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갖고 계신 사진, 증빙이 될 만한 자료, 연대기표, 인물관계도 등을 첨부하여 응모해 주세요.

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의 글과 자료는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 자료로도 활용되며 한인사회의 여러 행사(한인사 사진전 & 출판기념회)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연락처와 함께 한인뉴스로 보내 주세요.

haninnewsinni@gmail.com,

madonnaj202@gmail.com /

문의 : 0818-711-246, 081-111-7230



상단 좌로 부터 김문환 대표집필자, 안선근 수석연구위원, 신성철 공동총괄편찬위원과 박재한 편찬위원장 하단 좌로 부터 사공경 수석집필위원, 채인숙 수석편집위원, 조연숙 집필위원

## 제2회 KORAS CHAMPIONSHIP



2017년 재인도네시아한인회가 제정한 임원 골프대회의 새로운 이름 KORAS (KOREAN ASSOCIATION) CHAMPIONSHIP의 2회 대회가 로얄자카르타 에서 8월 15일 개최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8월 25일에 열리는 한-인니 광복절기념 5Km 마라톤-걷기대회 (Saranghae Merdeka 5K)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와 홍보를 부탁했다.

또한 2020년 인도네시아 한인진출 100년을 맞이 기념 프로젝트인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중부자와주 스마랑시의 암바라와 포로수용소내 위안부 처소, 44칸 중 1칸이라도 표지석 등을 세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한인회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2016년 8월부터 3년간 직스 발전에 기여한 백우정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KORAS CHAMPIONSHIP에서는 이세호이사가 그린자켓의 영예를 안았다.



메달리스트: 이세호



위너(남):이육찬



위너(여): 김경애



백우정교장



## “화폐전쟁의 서막”

미국 vs 중국, 누가 카지노 칩을 옮기게 될까?

글: 이해창 (신한은행 전무)

지난 달, 위안화의 시장 환율이 달러당 6위안대에서 7위안대로 올라서자 1994년 이후 25년만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며 양국간 무역 갈등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미국이 매우 비이성적인 조치로 국제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함과 동시에 “미국은 중국을 겨냥해서 방아쇠를 당겼지만, 자신도 총알에 맞은 꼴” 이라고 지적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며 바야흐로 무역분쟁에서 통화전쟁의 양상으로 바뀌는 미중 간의 격돌에서 시진핑의 중국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글로벌 공급망이 지극적 차원으로 연결된 현대 사회에서 국가간 경제 전쟁은 어느 일방의 승리나 패배로 끝나기는 힘들다. 패권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승리해서 새로운 패자로 등극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무리하게 지정하는 것은 미국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공격하는 단계를 기존 무역전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마지막 단계인 통화전쟁으로 이동함을 의미하는 만큼 가벼히 넘길 수 없는 문제이며, 이와 함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홍콩시위의 배후로 미국정부가 지목받는 것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이른바, 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국을 대상으로한 화폐전쟁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빌미가 된 플라자 합의화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1970~80년대 일본은 세계 최강 미국을 넘보는 경제대국이였다. 당시 일본은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제일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승승장구 하고 있었던 반면 미국은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부동산과 기업들을 사들였으며 이 시기 미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적대감과 두려움은 커져만 갔는데 특히, 미쓰비시 부동산이 록펠러 빌딩을 구입하자 미국의 자존심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시 미국의 대일 반격 핵심 카드는 ‘엔화강제평가절상’ 이였다. 1985년 미국은 세계경제 안정화를 구실로 ‘플라자합의’ 를 체결, 엔화를 강제로 절상시켰다. 이로 인해 일본은 수출시장이 악화됐고, 국내시장도 불황에 빠졌다. 국내경기침체를 우려한 일본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엄청난 버블을 만들었고, 그것은 결국 ‘일본 잃어버린 30년’ 의 단초가 되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또한 본인들이 미국에게 배웠던 것을 한국에게 써먹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현 시점을 미국이 일본 경제를 놀렸듯이 일본이 한국 경제를 놀려야 될 타이밍으로 본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미국과 중국의 애기로 돌아오면, 냉전의 시대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은 전 세계에 퍼지는 달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중요한 기지로 부상하게 된다. 중국의 학생과 학자를 불러 과학기술을 가르쳐주고 위안화 환율이 5~6배 절하되는 것을 용인하면서 중국의 저가 제품은 전세계 시장으로 퍼져가게 된다. 반면, 1980년대 초반 미국은 달러강세 때문에 쌍둥이 적자가 심각해지게 되자, 1985년 플라자 협정을 통한 일본의 제압을 시작으로 한국, 대만, 중국 등 대미흑자 과다국들을 순서대로 견제하기 시작한다. 당시 중국의 이중환율제도는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공정환율과 기업간 외환 거래를 통한 조절환율로 나뉘었는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 환율을 자기들 맘대로 맞게 쓴다는 점에 있었다. 실제 1990년대 초반 중국 정부는 위안화/달러 환율기준으로 할 때, 수입할 때는 5.7의 공정환율을 쓰는 반면, 수출할 때는 10.8의 조절환율을 적용했었다.

그러나, 중국은 더이상 대미흑자만을 이유로 미국이 손을 보고자 했던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이제 무역전쟁의 파트너를 넘어서 통화전쟁의 상대가 되어버린 가운데, 기축통화를 둘러싼 양국의 진중한 패권싸움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 미국은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을 시작으로 달러를 세

계의 기축통화로 세우고 세계금융과 경제 패권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과거 독일, 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경제강국을 넘어 본인들이 위안화를 세계경제의 기축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유발하려고 생각해 낸 여러 무리수들 즉, 외환시장개입, 국채매입강화, 금리추가인하, 양적완화 재개 등이 금번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따라 현실화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안그래도 2011년부터 시작된 달러 강세는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었으며, 아울러 4조달러에 달하는 양적완화가 재정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미국의 쌍둥이 적자폭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무역전쟁 및 관세보복과 더불어 양국간 패권전쟁에 항상 언급되는 기축통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풀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이를테면 글로벌 경제를 카지노라고 가정해보자, 현재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인 세상에서는, 카지노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칩을 바꿔야하고 게임을 마치면 다시 카지노 칩(달러)을 현금(원화, 위안화 등 자국통화)으로 바꿔 가는 시스템이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질서가 유지되는 현실세계에서 글로벌 경제에서 플레이어들은 본인들이 돈을 한번 댄다고 카지노를 떠날 수가 없으며 세계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판돈은 커지고 게임은 계속된다.



더욱이 카지노에서 플레이 뿐만 아니라 직접 칩을 관리하며 심지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칩의 발행량까지 조절하는 (가장 큰 판단을 보유한) 플레이어인 미국은 본인이 맘대로 발행하는 칩들을 다른 플레이어에게 저리에 빌려주기까지하며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좀더 공격적인 베팅을 유도하며 판단은 더더욱 커질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통화확대이다.

게임이 계속되며 플레이어들의 탐욕은 늘어가고 그들이 더욱 많은 칩을 빌리며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순간 버블은 발생하게 되며, 이후 칩을 관리하는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칩을 많이 잃는 상황이 되면 그들은 카지노에 풀어논 대량의 칩들을 다시 거두어 들일 것이다. 이때 많은 칩

을 빌려 과도한 투자를 감행했던 투자자들은 판단을 뺏기게 되어 더이상 베팅조차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된다. 결국 이들은 칩을 빌려준 큰 손들에게 모든 재산을 담보로 다시 칩을 빌리며 카지노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 상황이 바로 흔히 말하는 양털깎이이며, 필자가 바라보는 우리나라가 또 동남아 신흥국들이 20여년전 겪었던 IMF의 민낯이다.

“내가 한 국가의 화폐 발행을 관장할 수 있다면, 누가 법을 정하든 상관 없다” 십여년전 너무나 유명해서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 봤을 “화폐전쟁” 에서 필자에게 충격을 주었던 내용이며 당시의 충격과 의문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 ‘모르면 위기, 알면 안심!’

## 안전문자 공지 시스템 가동 임박

2019년 8월 14일, 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부(김종민 총영사, 류완수 영사)는 인도네시아 한인 언론매체 대상의 설명회를 가졌다.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불안해소와 안전관련 사항과 지진, 화산 등 각종 재난 발생 대비 사전 경보 및 재난발생시 추가 피해 감소를 위한 대사관안전공지 발송체계를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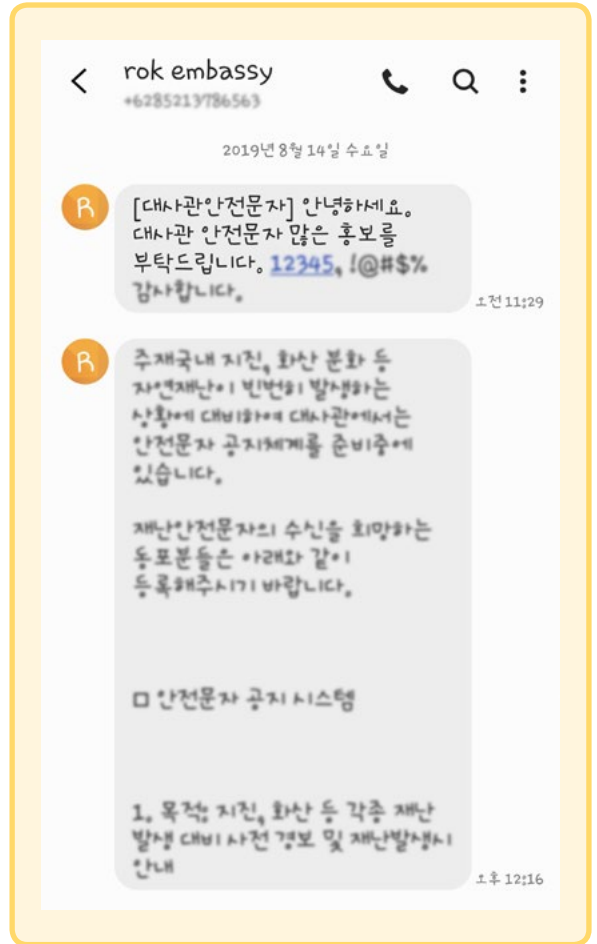
안전문자 공지 시스템 개발은 2018년 8월 5일 롬복 지진과 9.28 Palu 지진 후 필요성을 인식하 ‘카카오 특 플러스 친구’ 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인터넷 불가 시 SMS 사용을 병행하려 했으나 회사 정책상 ‘플친’ 이 24시간 서비스제한으로 SMS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문에 [대사관 안전공지] 문구 삽입, 발송(최소 세대당 1인, 기업별 2인)하기로 하고 8월 8일부터 **안전문자 공지 수신 희망자는 <http://rok-embassy.com>에 접속**하여 8월 한달간 자발적인 기본정보 등록으로 이루어진다.

지역한인회 및 한인회구성이 되어있지 않은 곳까지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수신 희망자등록기간(8월 8일~ 8월 25일)종료 이후 추가 개인별 접수도 가능하다.

변경된 개인 인적사항 수정가능, 귀국 시 등록조회 탈퇴 조치해야하며 시스템의 사전 실험 등으로 문제없을 시 2019년 9월1일부터 안전문자 공지 시스템서비스 개시한다.



발송은

- ✓ 대규모 지진발생 및 쓰나미 경보 발령 시
- ✓ 공항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화산 분화 시
- ✓ 계절적 요인에 의한 질병발생 주의보 및 기상청 기상주의보 발령 시
- ✓ 휴가철 특정 범죄 피해 주의 필요 시
- ✓ 테러 및 정정불안 요인 및 대규모 시위발생 예상 시
- ✓ 기타 동포사회에 신속한 전파가 필요할 때 등으로 한다.

**특히 자바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 동포들은 반드시 등록하기를 권한다.**

## 수카르노의 일생을 통해 본 인도네시아 현대사



1946년 11월 1일 자카르타에 도착한 수디르만 장군

지난 호에 이어

한편 정부는 1946년 공화국 군대의 이름을 두 번 씩이나 개명했는데 국민치안군(TKR)으로 개명했던 것을 다시 인도네시아 공화국군(TRI)이라 바꾸었던 것이다. 그해 초엔 해군과 공군도 각각 정식 출범했다. 그사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네덜란드 수중에 떨어진 자카르타를 떠나 그해 1월 중부자바의 족자로 옮겨온 상태였다. 수판 샤리르 총리가 자카르타에 남아 네덜란드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만 흘렀고 그사이 수디르만은 5월 25일 확장개편된 인도네시아군의 총사령관으로 재신임되었다. 그 의식에서 수디르만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흘려서라도' 국가를 보위할 것임을 서약했다. 그러나 국방장관 아미르 샤리프딘이 특정 이념과 정당에 충성을 바치는 좌익청년 준군사조직인 라스카르(Laskar) 무장청년단들을 휘하에 끌어들이고 군장병들에게 좌익사상을 전파하는 정치교양프로그

램을 도입하면서, 당시 군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던 수디르만과 우립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던 와중에 오히려 수디르만이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과다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도가 1946년 7월 초 네덜란드와의 협상 개시에 불만을 품은 투쟁연대가 현지 지역군 사령부의 도움을 받아 샤리르 총리와 각료들을 납치하는 형태로 벌어졌고 수디르만도 연루되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그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오늘날까지도 분명히 알려지지 않았다. 수디르만은 인도네시아 국영 라디오방송(RRI)을 통한 연설에서 이 소문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국가의 중북 일뿐이며 만일 그에게 대통령직을 제안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면 단호히 거절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그 후에도 군은 정치집단이 아님을 기회가 날 때마다 강조했다. 한편 연합군과 협상을 계속하던 샤리르 총리는



1946년 10월 7일 네덜란드의 뫼 쉐머혼총리와 휴전을 논의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이 협의는 영국외교관 킬런경과 수디르만 장군이 합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수디르만은 10월 20일 특별열차 편으로 자카르타를 향했으나 네덜란드군이 그와 그의 부대가 무장한 채 자카르타에 입성하는 것을 반대했으므로 중도에 족자로 다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수디르만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었다. 정치적 이슈가 늘 그렇듯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네덜란드 측의 해명을 받은 후에야 수디르만은 다시 기차에 올라 11월 1일 마침내 자카르타 감비르역에 도착했다. 그곳엔 엄청난 환영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 협상결과 11월 15일 링가자티 협정을 초안하게 되는데 1947년 3월 25일 비준을 받긴 하지만 인도네시아 민족주의 진영으로부터 가열찬 항의에 직면해야만 했고 수디르만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이 협정이 인도네시아의 국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군인으로서 어쨌든 정부의 결정에 따를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목라인

어쨌든 이 협정을 통해 1947년 초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가 도래하자 수디르만은 기존의 TKR 국민치안대와 라스카르 무장청년단들의 통합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는 위원회의 일원으로써 군을 재편했고 1947년 6월 3일 마침내 인도네시아 정규군(TNI)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한편 링가자티 협정을 통해 얻은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영국군이 1946년 11월 철수한 후

그 지역을 물려받아 점령하고 있던 네덜란드군은 1947년 7월 21일 ‘프로덕트 작전’이란 이름의 총공세로 자와와 수마트라의 상당부분을 수중에 넣었다. 다행이라면 족자의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직 무사하다는 것이었다. 수디르만은 전군에 항전을 명령했지만 준비태세가 되어 있지 않던 인도네시아군은 오히려 신속하게 궤멸되고 있었다.

당시 동인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달갑지 않게 바라보던 유엔의 압력으로 네덜란드군은 1947년 8월 29일 인도네시아군과 네덜란드군의 지배 지역의 경계선을 표시한 반목라인(Van Mook Line)이란 것을 선포하며 침공을 멈췄다. 위의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인도네시아군이 지배하는 곳이었는데 이 라인을 따라 휴전이 선포되었지만 네덜란드 점령지 내에도 인도네시아군은 다수의 게릴라거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수디르만 장군은 휴전조건에 의거해 부득이 네덜란드군 점령 지역에서 활동하던 35,000명의 게릴라 병력을 인도네시아군 지배 지역으로 철수시켜야 했다. 그러나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그는 이 철수작전을 히즈라 작전이라고 칭했는데 이는 서기 622년 선지자 무하마드가 자신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면서 메디나로 도망갔던 히즈라(Hijrah) 사건에서 따온 명칭이었다. 이들 병력은 철도와 선박편으로 속속 족자로 들어왔다.

이 경계선은 1948년 1월 17일 렌빌조약으로 고착화되는 듯했다. 이 조약은 당시 총리였던 아미르 샤리푸딘이 서명했다. 그는 군 정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병력감축을 시도했는데 독립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병력을 증강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축하겠다는 이 계획을 군수뇌부는 수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강행되는 과정에서 수디르만은 대통령령에 의해 1948년 1월 2일 군 총사령관직을 잃고 중장으로 강등되었다. 그 대신 공군사령관 수르자다르마가 총사령관직에 올랐다. 샤리푸딘의 내각이 총사퇴한 후 그 뒤를 이어 총리직을 맡은 하타가 군정상화 프로그램



## 마디운사태

램도 넘겨 받았는데 수개월간 찬반양론의 격론이 오가는 동안 수디르만 장군은 군원로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의 반대진영 중심에 서있었다.

실각한 아미르 샤리푸딘은 사회당, 공산당은 물론 전인도네시아 노동조직의 구성원들을 끌어 모아 1948년 9월 18일 동부자바의 마디운에서 프롤레타리아 봉기를 일으켰다. 당시 병석에 누워있던 수디르만 장군은 나수티온을 보내 이 혁명을 진압하려 했고 공격전에 두 명의 장교를 먼저 보내 평화적 해결을 타진해 보았다. 혁명 리더였던 공산당 당수 무소는 평화적 타결에 동의했지만 호전적인 나수티온 대령은 이를 무시하고 9월 30일 군사작전을 통해 봉기를 무력화시켰다. 아직도 공산당 소탕이 벌어지고 있던 시기에 마디운 현장을 방문한 수디르만 장군은 그곳에서 흘린 동족들의 피가 안타까워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이 마디운사태는 좌우진영의 첨예한 충돌을 야기했고 좌익이 패배하면서 인도네시아 공산당(PKI)은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

이 반란과 그 후에도 계속된 일련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이 수디르만의 건강을 크게 악화시켜 1948년 10월 5일 인도네시아군 창설 3주년 기념식장에서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폐결핵이었다. 그는 10월 말 뻘띠라삐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오른쪽 폐는 이미 그 기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그가 입원해 있는 동안 군의 대소사는 자바 사령관 나수티온 대령이 처리했지만 두 사람은 대네덜란드전 군사계획을 끊임없

이 협의했고 수디르만은 매일 상황보고를 받았다. 그들은 이미 그해 5월부터 네덜란드 점령지 공격작전에 활용되고 있던 게릴라전술을 대네덜란드전 기본전술로 채택함에 뜻을 같이 했다. 퇴원한 수디르만 장군이 다시 지휘봉을 잡은 것은 12월 17일이었다. 네덜란드군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수디르만은 인도네시아군이 좀 더 경각심을 갖도록 촉구했고 그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해 네덜란드군의 기를 꺾으려 했지만 그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네덜란드군은 오히려 그 이틀 후인 12월 19일 렌빌 조약을 깨고 수도 족자를 공격해 왔다. 전황을 파악한 수디르만 장군은 인도네시아 국영 라디오방송 RRI를 통해 모든 병사들이 훈련 받은 대로 게릴라전을 수행하며 항전할 것을 명령했다. 그 내용은 이랬다.

전술명령 No. 1/PB/D/48

1. 우리는 공격받았다.
2. 1948년 12월 19일 네덜란드군이 족자와 마구 위비행장을 공격해왔다.
3. 네덜란드정부가 휴전협정을 깨뜨렸다.
4. 모든 병사들은 앞서 훈련한 바와 같이 네덜란드군 공격에 항전하라.

그런 후 그는 족자 중심부의 대통령궁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식민통치를 거부한다면 족자를 쏘대밭으로 만들겠다는 네덜란드군의 최후통첩에 대한 회의가 한창이었다. 수디르만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즉시 도시를 떠나 그들이 이미 계획했던 게릴라전으로 항전할 것을 강권했지만 그의 요구

는 간단히 거절되었다. 전황이 불리해지자 정치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할 용기조차 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이 좌절한 수디르만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카르노에게 허락을 얻어 전선으로 돌아갔다. 그 자리에 없었던 장관 6명을 제외한 족자의 중앙정부는 진주해 온 네덜란드군에게 모두 사로잡혀 수마트라의 방카섬에 유배되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그해 말까지 자바와 수마트라의 대부분 도시들이 네덜란드군 수중에 떨어지면서 이제 수디르만은 대통령도, 정부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항전을 계속 해야만 했다.

수디르만은 우선 자신의 숙소에서 중요문서들을 파기한 후 소수의 병력과 주치의만 대동하고 남쪽 반푼 빠랑뜨리피스 지역의 끄레텍으로 탈출했다. 빠랑뜨리피스 지역 해안은 그 옛날 마따람 왕국의 권능왕 스노빠띠에게 남쪽바다의 지배자인 니롤로키들 여왕이 헌신해 제국의 건설을 돕겠다고 서약했던 곳이었는데 네덜란드군의 질풍 같은 공세 앞에 풍전등화의 운명이 된 인도네시아에게도 그런 기적이 필요한 시기였다.

끄레텍에 들어서 촌장의 환영을 받은 수디르만은 며칠 그곳에 머무는 동안 네덜란드 점령지를 정찰한 후 다시 남쪽 해안을 따라 워노기리 지역으로 이동했다. 네덜란드의 침공이 있기 오래전부터 그

가 동부자바 지역에서 게릴라작전의 지휘소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곳엔 기지로 사용할 만한 천혜의 장소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네덜란드군의 포위망이 좁혀오던 12월 23일 수디르만과 그의 부대는 뽀노고로로 진행하다가 마푸즈라는 이슬람 끼아이를 만나 지팡이를 선물 받았다. 그는 절룩거리면서도 그 지팡이에 의지해 동쪽으로 계속 진행해 갔다. 그 지팡이는 그 후 수디르만 장군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프랭갈렉 외곽에서 수디르만 일행은 공화국군 102 대대의 병사들과 조우했다. 변복한 수디르만 장군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은 수디르만 일행이 탈출한 포로라고 둘러댄 얘기를 믿지 않았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나 노트에 표기된 인도네시아군의 동향 같은 것들은 스파이들이나 가지고 다닐 법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병사들이 붙잡아둔 수디르만 일행을 알아본 것은 상황확인 차 순찰 나온 부대지휘관 자이날 파나니 소령이었다. 그는 수디르만 장군에게 병사들의 무례를 사과하고 끄디리에서 장군과 그 일행을 태울 차량을 가져왔다. 잠시 숨을 돌린 그들은 다시 동쪽으로 길을 재촉했는데 그들이 막 출발하고 난 12월 24일 네덜란드군 전투기들이 끄디리를 맹폭했다.

네덜란드군의 집요한 추적과 공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수디르만은 자신과 외모가 많이 닮은 헤루 깨씨르 중위에게 자기 옷을 입혀 비교적 많은 병력과 함께 남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옷을 갈아입고 북쪽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기만전술을 사용하면서 정작 수디르만 장군 일행은 까랑농코에 머물다가 12월 27일 그곳을 출발해 1949년 1월 9일 데사잠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수디르만은 네덜란드군의 족자공략 당시 그 자리에 없었던 몇몇 장관들을 거기서 만나 그들과 함께 반유투위로 진행해 일주일 가량 머물렀으나 정보가 새어나가 네덜란드군이 그곳으로 접근해 오자 폭우를 틈타 또 다시 탈출해 산길 노정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수디르만 장군의 지팡이

다음호에 계속

# 2019년 8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 홀짝제 확대 계획에 “물류 비용 상승·대기오염 악화” 우려 목소리 높아



자카르타특별 주정부가 주요 도로에 도입한 차량 진입 규제 방법인 홀짝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해 물류협회(ALI)는 택배 요금이 20% 정도 상승하는 등 물류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업계는 오토바이가 홀짝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홀짝제 확대 후에는 승용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반대로 교통정체와 대기오염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ALI의 한 관계자는 “이륜차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지 못한 채 자동차의 홀짝제를 확대하는 경우 택배 사업자는 오토바이를 택배 차량으로 많이 이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짐의 양이 적어 비용이 상승한다”며 “사업자의 경우 오토바

이를 추가 조달해야 하고, 택배 요금은 업계 전반에 걸쳐 20% 정도 상승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인도네시아 교통협회(MTI)는 자동차의 통행 규제를 확대하는 것보다 수가 많은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TI의 관계자는 “홀짝제의 확대는 대기오염 대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환경 개선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중심부 메단 르르데가 바닷거리와 땀린 거리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했을 때 규제 전과 비교하여 교통량이 감소했으며, 평균 시속이 26.3km에서 30.8km로 개선되기도 했다.

## 조코위 2기 행정부 내년도 예산안...' 인적자원 질 개선·경쟁력 향상' 강조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16일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번째 임기의 첫 해에는 특히 인적자원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테마는 ‘인적자원 질 개선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가속을 위한 예산’ 이다.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교육 분야의 예산은 조코위 행정부의 첫 임기가 시작된 5년 전과 비교하여 30% 증액된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5.3%로 설정했다.

세입은 2,221조 5,000억 루피아, 세출은 2,528조 8,000억 루피아로 설정했다. 모두 전년 대비 3% 증액된다.

재정 적자는 307조 2,000억 루피아로 전년 대비 4% 증가되지만, 2019년 예산에서 1.84%로 설정했던 국내총생산(GDP)은 1.76%로 했다.

세입 중 세수는 일반 세수를 4% 증가하는 한편, 석유·가스 및 광물 등으로부터 얻을 세외 수입은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코위 대통령은 16일 하원에서 열린 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불리한 외부 요인을 배경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를 추진할 수 있는 5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고 말했다.

특히 (1)건전하고 현명하며 숙련된 인재의 질적

향상 (2)경제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 가속화 (3)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강화 (4)지방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균형의 강화 (5)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 등 다섯 가지 측면을 골자로 설명했다.

교육 분야에는 505조 8,000억 루피아를 할당한다. 5년 전과 비교하여 약 30% 증가한다. 그 중에서도 중앙 정부의 169조 9,000억 루피아 외에도 지방 교부금으로 두 배 가까이 할당하여 306조 9,000억 루피아를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취약이 곤란한 6~21세의 2,010만 명과 대학생 82만 명에 장학금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지난 4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빈곤층을 위한 취약 프로그램 실현’ 의 일환이다.

의료 부문 예산은 132조 2,000억 루피아로 설정하여 5년 전에 비해 약 2배로 확대했다. 국민건강보험(JKN) 가입자 9,680만 명분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56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보조금 지급액을 40% 가까이 증액한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 교부금의 확충도 담았다. 2019년 예산에서 4% 증가한 858조 8,000억 루피아로 설정했으며, 이는 5년 전에 비해 40% 가까이 증가한 액수다.

인프라 개발 및 정비의 촉진은 계속 우선 과제로 한다. 내년도 인프라 정비 예산은 2019년에서 5% 증가한 419조 2,000억 루피아로 늘린다.

인프라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1)총 연장 837km의 도로 유지 보수 (2)총 연장 238.8km의 철도망 정비 (3)신공항 3개소의 건설을 꼽았다.

## 중앙은행, 4~6월 경상수지 적자...GDP 대비 3.0%로 확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9일 발표한 2분기(4~6월) 경상수지는 84억 4,300만 달러 적자였다.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자원 가격 하락과 국제 경제 침체, 외채 상환 등의 내외 요인으로 흑자가 축소했다. 경상수지 적자의 국내 총생산(GDP) 비율은 전분기의 2.6%에서 3.0%로 확대했다.

중앙은행은 정부와의 협력을 계속해 연간 경상수지 적자를 GDP 대비 2.5~3.0%로 맞출 계획이다.

국제 수지는 전분기의 24억 1,900만 달러 흑자에

서 19억 7,7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9일 발표한 2분기(4~6월) 경상수지는 84억 4,300만 달러 적자였다.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자원 가격 하락과 국제 경제 침체, 외채 상환 등의 내외 요인으로 흑자가 축소했다. 경상수지 적자의 국내 총생산(GDP) 비율은 전분기의 2.6%에서 3.0%로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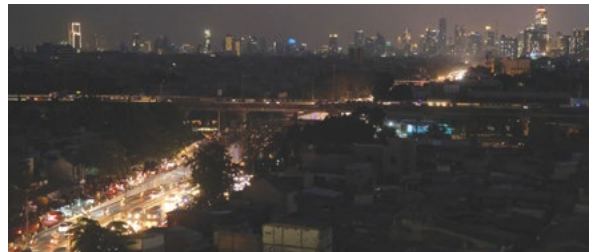
중앙은행은 정부와의 협력을 계속해 연간 경상수지 적자를 GDP 대비 2.5~3.0%로 맞출 계획이다.

## 수도권 대규모 정전 보상금, 10월 지급 예정

리니 마리아니 수마르노(Rini Mariani Soemarno)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 장관은 19일 수도 자카르타를 포함한 자바섬에서 지난 4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해 국영 전력 PLN이 오는 10월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보상액은 총액 8,390억 루피아로 추정된다. PLN의 드위 흥보 담당 부사장은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9월에 지불할 수 있도록 처리를 서두를 것” 이라고 말했다.

PLN에 따르면 보상 금액은 9월 이후 각 고객에게 통지한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서비스 품질 기준과 PLN의 전기 분배 비용에 관한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령 ‘2017년 제27호’ 를 기반으로 보조



금을 받은 고객은 다음 달 전기료의 20%를, 보조금을 받지 않은 고객은 35%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상 금액은 PLN 웹사이트 <<https://layan.pln.co.id/InfoTmp.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Informasi Kompensasi’ 를 클릭하여 계약 내용 등을 입력하면 보상 예정액이 표시된다.

## 7월 인도네시아 외환 보유액 2% 증가, 2개월 연속 증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지난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말 인도네시아의 외환 보유액은 6월말 보다 2% 증가한 1,259 억 달러이며 2개월 연속 외환 보유액이 증가했다. 이는 석유·가스 부분의 수익 증가와 정부의 외환 부채 증가로 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환 보유액은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

를 기록했으며, 3개월치 경상수입대금의 국제적 적정성 기준을 웃돌았다. 또한 7개월분의 수입대금과 정부의 단기 외채 지불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온니 위자나르코(Onny Widjanarko) BI 대변인은 “현재 외환보유액은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물론 인도네시아의 대외적 회복세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고 말했다.

## 반동 LRT, 가까운 시일내 착공... 2020년 말에 개통



인도네시아 엔가르띠아스또 루끼따 무역장관

인도네시아 엔가르띠아스또 무역장관은 9일 인도네시아산 바이오 연료에 대해 유럽연합(EU)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으로 EU산 유제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안파라뉴스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엔가르띠아스또 무역장관은 “이미 EU 무역 담당처에 통지했다” 라며 “EU가 반덤핑 관세를 도입한다면, 우리도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보호주의 무역전쟁의 시작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엔가르띠아스또 무역장관은 이어 “EU산 유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정부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인도 등 유제품 대체 수입처를 최대한 빠르게 모색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관세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EU산 우유와 크림 수입액은 지난해 연간 1억 3,500만 달러에 달했다. 수입 유제품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EU의 유럽의회는 최근 인도네시아산 바이오 디젤에 8~18%의 반덤핑 관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관련 조사를 거쳐 9월 6일까지 관세율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 자카르타 대중교통 정보

## 편리해진 대중교통 수단

글: 이수진  
 문예총 수석부회장/편집위원



세계 최악의 교통난으로 이름난 자카르타에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자카르타시는 대중교통수단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자카르타에 사는 현지 교민들 뿐만 아니라 장단기로 여행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알아본다. 이러한 교통수단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퍼시픽 플레이스몰, 플라자 인도네시아, 그랜드 인도네시아, 모나스, 국립박물관, 대통령궁 등으로 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경험한 자카르타 대중교통을 소개하고자 한다.

FX 몰 : MRT Senayan  
 퍼시픽 플레이스몰, 술탄호텔 : MRT Istora Mandiri  
 플라자 인도네시아 : MRT Bundaran HI  
 국립박물관, 모나스, 대통령궁 :  
 MRT Bundaran HI + 트렌스자카르타  
 바타비아 카페 : 트렌스자카르타 블록엠에서  
 KOTA 행

### 1. MRT 타기

MRT는 남부 자카르타 지역에서 자카르타 중심가로 연결된 전철로 남부 자카르타에서 각 지방으로 연결된 시외 버스 정류장인 르박불루스(Lebak Bulus)에서 시작하여 분다란 하이(Bundaran HI)까지 간다. 올해 3월부터 개통을 시작하여 총 13개 구간이 있다. MRT는 남부자카르타에서 시내 중심부로 나가는 데 10~20분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아 아주 편리하다. 5~10분 간격으로 다니는 MRT는 역 구간을 달리는데 한 구간당 2분이 소요된다. MRT를 타고 퍼시픽 플레이스몰이나 술탄호텔로 가보라. 스나얀 근처 이스토라 만다리 역 Exit D 또는 Exit C에서 내려서 바로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길 중간에 있는 퍼시픽 플레이스몰 지하연결 통로가 나온다. MRT 정류장 Haji Nawi는 Informa와 Meble Plaza 몰 사이에 놓여 있어서 편리하다. MRT Blok A 정류장 근처는 무궁화 다르마왕사 분점이 가깝게 위치해있고, 역 근처에 건축자재나 타일 등을 파는 가



계들이 준비하다. 르박블루스부터 아세안역까지는 지상으로 철도가 나있고 스나안부터는 지하로 연결되어있다. 더불어 앞으로 몇 년 후 현재 1호선 연장선으로 사리나 모나스, 하모니, 사와브사르, 망가 브사르, 글로독 꼬따까지 MRT 선을 추가로 연결될 예정이다. 별도의 티켓이 있으나, 톨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하다. 전철역 주위에 역세권은 이제 자카르타의 전철과 함께 발전하기를 기원해본다.

## 2. 에어컨이 빵빵한 Trans Jakarta 버스타기

트랜스자카르타는 버스의 종류와 색깔이 다양하다. 파란색 트랜스자카르타는 도로 가운데 위치한 정거장 및 버스전용차선으로 다닌다. 길이 막히는 출퇴근시간에도 파란색 트랜스 자카르타를 이용하면 약간 덜 막힌다.

빨간색 트랜스 자카르타 버스는 GR1 GR2 GR3 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 무료버스이다. 파란색 트랜스 자카르타와는 달리 길 중간이 아니고 길가쪽에서 타게 되어 있다. GR1 빨간 트랜스 자카르타의 경우는 스나안 Bank Panin에서부터 국립박물관을 지나 그 다음역 Harmoni 까지의 시내중심구간을 10분 간격으로 다닌다. 버스 그림에 Stop 이라고 쓰여 있는 정류장 표시를 찾으면 된다.

파란색 트랜스자카르타는 노선이 아주 많고 복잡하게 되어있어 여러 방향으로 다닌다. 본인이 자

주 이용하는 도로의 트랜스자카르타를 미리 점검하고 끌라빠 가딩이나 라구난 동물원도 이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고 뽀독인다에서 타고 라디오달람을 지나 시내로 나가는 버스도 있다.

블록엠에서 출발하여 꼬따까지 가는 파란색 트랜스자카르타는 스나안과 봉까르노 경기장을 지나 시내를 통과하여 분다란 하이그 있는 하얏트 호텔과 국립박물관 모나스를 거쳐 파타힐리 광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꼬따 역에서 내려 은행, 박물관, 바타비아 카페, 와양 박물관, SD Museum을 돌고 나서 다시 타고 시내로 나오기에 아주 편리하다. 요즘에는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가는 4차선이나 2차선 도로에 빨간 트랜스자카르타 지나가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또한 트랜스자카르타 버스에 여성칸 남성칸이 나뉘어져 있어 신기하다.

## 3. MRT 와 Trans Jakarta 갈아타기

MRT 를 타고 나가서 파란색 트랜스 자카르타로 갈아타면 버스 전용도로로 인해 길 막히는 시간에도 길이 막하지 않게 움직일 수 있다. Jl. Gatot Subroto 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을 가려하면 MRT Bendungan Hilir 역에서 내려 트랜스 자카르타로 갈아타고 RS Medistra 역으로 가면 된다. 끌라빠 가딩이나 찌부불에서도 트랜스 자카르타 버스를 타고 자카르타 시내로 나와 MRI 나 버스를 갈아타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특히 국

립박물관이나 모나스로 가려면 MRT 를 타고 Bundaran HI 종점에서 내려 버스STOP 이라고 써있는 곳에서 타는 빨간색 트랜스자카르타 GR버스(무료 버스)로 갈아타면 된다.

Blok M 에서 Kota 행 트랜스 자카르타를 타면 바타비아카페로 한번에 갈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



#### 4. 그랩

그랩은 가장 많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기가 가장 높다. 그랩이 가장 편리한 이유는 첫째로 무엇보다 기사와 한마디 대화가 필요없다는 점이다. 그랩은 어디나 많아 쉽게 잡을 수 있고 차량 대기 시간이 길지않아 5분 내외로 보면 된다. 둘째로 비용이 일반 택시보다 더 저렴하다. 셋째로 구글맵



을 이용하여 막히는 길을 피해서 가기 때문에 어디든지 빨리 갈 수 있다. 넷째로 OVO 로 연결해서 지불하면 지갑을 열어 돈을 낼 필요도 없이 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비용을 지불하고 차를 타게 된다. 다섯째로 그랩은 취소가 쉽고 취소시에도 사유를 제출하고 나면 별도의 페널티를 크게 받지 않는다. 그랩에서 물건을 놓고 내렸을 경우에도 별문제없이 쉽게 되찾을 수 있다. History 에 보면 그 전에 이용한 그랩기사의 연락처 행선지등 모든 기록이 다 되어 있으므로 최근에 승차한 그랩 기사와 연락이 가능하여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기가 아주 쉽다. 차와 기사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말이나 늦은 밤 시간대에는 그랩을 타고 다니면 더욱 편리하다. 가족이 여럿이 있을 때는 차량을 유지하고 기사를 쓰는 게 낫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차량 유지비보다 그랩이 훨씬 적게 들어 개인차를 쓸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다. 그랩은 거리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어 길이 많이 막혀도 비용은 일정한 수준으로 나온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제 올해 9월 9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훌쩍제가 더 많은 도로에 확대되어 시행되므로 적절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자카르타 교통 상황에 잘 대처하면 좋겠다.





## 제5대 코참 출범식

지난 8월 28일(수) Damai Indah-BSD 골프장에서 ‘제5대 코참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출범식은 1부 골프 대회, 2부 공식 출범식 행사로 진행되었다. 제5대 코참 송창근 회장은 2013년과 2016년 제3대, 제4대 코참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연속으로 제5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취임사에서 송창근 회장은 회원사분들께 3년을 또 맡겨 주심과 코참이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세계 경제 환경 속에 코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 개정에 대해 언급하며 코참도 함께 지혜를 모아 동참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어 김창범 대사와 박재한 한인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송창근 회장의 연임 축하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단체가 되길 기원했다.

또한, 코참 이주한 사무총장의 코참 비전 발표 후 소식지 ‘KOCHAM NOW’를 새롭게 선보였으며, 이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엔젤 투자자를 모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식 출범식 행사에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김창범 대사, 한인회 박재한 회장, 각 단체장, 코참 회장단 및 회원사들이 약 120여명 참석하였다.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이하 코참)는 1991년 한인회 산하 상공분과위원회를 모태로 하여 시작되었으며, 1999년 공식 확대 발족하여 독자적인 단체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지난 2013년 조직을 재개편하여 한인기업 발전 및 회원사 이익 증진에 실질적 도움을 위한 회원제 경제단체로 거듭났다. 현재 약 200여 개사가 코참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제공:코참 사무국)





## Aroma Sedap (Menteng)



글: 주윤지 (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여러분~안녕하세요! 여름맛이 몸보신 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어요... 한국은 곧 추석 연휴로 송편, 소갈비찜, 모듬전, 잡채, 토란국, 삼색나물, 한과, 식혜 등 다양하고 맛있는 명절음식들을 가족 및 친지들과 함께 오손도손 즐기겠죠? 후후ㅠㅠ 인도네시아에서의 타향살이가 점점 길어질수록 한국의 명절음식이 더욱 더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도 한국인들 입맛에 맞는 맛있는 음식들이 많으니 그것으로 그나마 위안을 삼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식 씨푸드 식당인 Aroma Sedap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고급 현지식당들이 즐비해 있는 멘헝 지역해 위치하고 있는 이 식당은, 향, 냄새 뜻을 가진 단어 'Aroma' 와 맛있는, 향기로운 뜻을 가진 단어 'Sedap' 이 합쳐져 '맛있는 향'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당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맛집인 식당이죠. 보통 씨푸드 식당하면 정갈하지 않은 식당 인테리어 또는 씨푸드 시가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가격 등의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식당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주는 곳입니다! 2015년에 오픈하여 깔끔한 인테리어와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한국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다소 안타까운 식당입니다! 광활한 갯벌에서 숨겨진 보물을 찾는 느낌이 든 식당이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식당의 추천메뉴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Ikan Kudu-kudu Goreng Bawang Putih (184,000루피아++/2인분 기준 8oz)는 이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Ikan Kudu-kudu 음식을 파는 곳은 처음이에요. 보통 식당에서는 Ikan Gurame, Ikan Kakap 등의 음식만 팔잖아요.

Ikan Kudu-kudu가 있다는 것을 이 곳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Ikan Kudu-kudu 맛이 Ikan Gurame 또는 Ikan Kakap과 크게 다른 점을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생선튀김으로 먹어서 그런거겠죠? 생선 배를 갈라 오동통통한 살은 튀김으로, 껍질은 통째로 튀겨 데코레이션으로 나온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음식은 맛도 맞지만 눈으로 즐기는 것도 중요하죠.

2. Udang Balur (80,000루피아++/2인분 기준 2oz)도 이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Salted Egg 소스를 발라 껍질째 튀긴 음식이에요. 2oz정도면 중간크기의 새우가 대략 8마리 정도 나옵니다. 생각보다 새우크기가 컸어요. 보통 새우요리는 가격이 있는 편인데 이 식당은 저렴해서 참 좋습니다!

3. Cumi Bakar Kecap (65,000루피아++)은 인도네시아식 달달한 간장 소스가 발린 오징어구이인데요~ 짭조름한게 밥반찬으로도 좋지만 맥주안주로도 딱입니다! 함께 나오는 소스에 굴이 찍어 먹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히 짭조름합니다. 짬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그닥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참~ 한국의 갑오징어 구이를 상상하시면 오산이십니다. 쭈꾸미처럼 생긴 작은 오징어 2~3마리 정도 나옵니다.

4. Kerang Bambu Saus Padang (44,000루피아++)은 강추 메뉴입니다. 매콤한 파당 소스와 함께 조갯살을 흰밥에 얹어 먹으면 정말 꿀맛입니다. 소스가 참~입에 찰싹~달라 붙습니다. 입맛 없는 분들의 식욕을 돌아오게 하는 한국의 오징어젓갈, 낙지젓갈 등과 같은 입맛을 확 돋구는 그런 음식이에요. 감이 오시죠?^^

참고로 약 15여명 가량 수용가능한 룸도 1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조용하게 소모임도 가능합니다. 이 식당은 깔끔한 식당에서 저렴하게 씨푸드 음식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 정말 강추입니다!

처음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섬나라인 이 곳에서 신선한 씨푸드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거라 기대했었죠... 하지만 현지 씨푸드 음식들은 제가 위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모두 튀기고 구워 소스와 곁들여 먹는 음식들이라 씨푸드 고유의 맛을 느끼기가 힘들더라고요... 한국의 조개구이, 대게찜 등 신선하고 담백한 씨푸드 음식들이 그리됩니다ㅠㅠ.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 <식당 정보 : Aroma Sedap>

음식 종류 : 인도네시아 현지식(씨푸드)

가격대 : Rp 4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11:00~22:00

전화번호 : 021-390-2312

위치 : Jl.Teuku Cik Ditiro No.43  
Menteng, Jakarta

※ Zomato 참고

## 코코넛 빗자루의 고희



문인기 /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caleb2002@hanmail.net

열대 각 곳에 서식하여 남국의 정취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야자수에 얽힌 추억도 많고 매력도 다양하다. 야자수는 우리 인간에게 주는 유익함도 수없이 많다. 한마디로 야자수로부터는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다 쓰임 받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야자수는 전적인 헌신을 인간에게 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야자수에서 얻는 것 중에 잎줄기에서 얻는 빗자루는 인간 삶의 주변을 청소할 때 필요한 소박하고 전통적인 도구다. 사람의 손에 들려 더러운 쓰레기를 쓸어버리는 도구이기에 가장 낮고 천하고 더러운 것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다.

코코넛 잎으로 빗자루 하나를 만들려면 큰 잎 두어 개면 족하다. 갈비뼈처럼 잎을 지탱하는 줄기

들이 잎을 지어 하나의 큰 잎을 형성하는데 그 작은 잎 하나하나를 훑어 줄기 뼈대만을 취하여 모아 철사로 두어 군데 묶으면 마당을 쓸 수 있는 싸리비처럼 되는 것이다.

날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 아침 산책길에서 만나는 이웃 사람들 중에 ‘수떠니’ 라는 이름의 아주머니가 있다. 남편은 줄담배 골초로 50대인데도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어 일도 못 나가고 병원 약으로 지탱한다. 늘 담배를 물고 다니는 그를 만날 때 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그 담배 좀 줄이시오” 라고 충고하는 좀 거북한 외국인이 바로 나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맛 좋은 담배를 내가 왜 끊어!” 하는 표정을 나에게 지어 보였

었지만 얼마 전 입원을 며칠 하고 나서는 의사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의 손에서 담배가 사라졌다. 어제 아침에 만났을 때 “담배는 어디 갔소?” 하니까 손사래를 친다. 갑자기 호주가 아파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떠니 아주머니는 큰 근심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담배를 끊어 전보다 건강해 질 소망에 안도하는 듯 더 밝아진 얼굴로 나에게 인사한다.

내가 한국에서 상비약으로 가져온 약들은 대개 이웃들이 사용한다. 주로 아침 산책 할 때 이웃들을 만나는데 서로가 얼굴을 보며 인사 할 때 나는 습관적으로 그들의 건강상태를 본다. 기침하면 기침약, 몸자세가 안 좋아 물어봐 허리가 아프다면 파스, 열이 난다면 해열제, 중기가 났다면 소염제와 썩 뜸 등등... 마을 공동묘지 옆에 사는 이웃 몇 가정은 마치 나의 아침산책을 기다렸다가 내가 지나가면 약을 원하여 자기들의 아픈 증세를 내 보이는 듯하다.

잠깐이라도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약을 주는데 약을 잘 안 먹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아니면 그보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지극하고 하해와 같은 사랑으로 치료효과가 빠른 게 틀림없다.

며칠 전에는 수떠니 아주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코코넛 빗자루 5-6개 들고 골목을 다니며 이웃집을 기웃거리는 것을 보고 멈추었다. 뭐냐 물을 것도 없이 이는 필시 뭐라도 만들어 팔아야 하는 절박한 형편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평소 부지런한 그의 삶의 자세에서 나온 발로인 것이 틀림없다고 여겼다. 얼마냐고 묻고는 한 개를 손에 들었다. 1만 루피아 라고 하여 내일 꼭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가지고 왔다. 옆집 사람이 이를 보고 “빗자루 사셨네요, 얼마 주고 샀어요?” 묻는다. 금액을 말하니 5천 루피아면 충분한데 비싸게 샀다는 것이다. 가격은 나도 짐작했던 사실이라 놀랄 일이나 기분 나빠 할 일도 아니었다. 기분 나쁘

게 생각을 할라치면 평소에 거의 매일 만나는 이웃인데도 왜 나에게만 비싸게 부른단 말인가 하고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가 나에게 극히 적은 것으로나마 명분 있는 나눔을 실천할 기회를 준 것이라 생각하였다. 좀더 여유가 있는 측에서 부족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순리이고 당연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자기애로 굳어져가는 현대의 삶에서 평소 남의 형편에 관심을 두고 살피다가 최적기에 돕기란 쉽거나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구나 악조건 가운데서 힘들여 재료를 모아 손이 부르도록 손수 만든 빗자루의 값은 일반 시장가격과 단순 비교하여 비싸다 하는 것은 너무 냉랭하다 생각한다.

내가 “빗자루 하나 주세요” 했을 때 그녀는 이 사람 친한 외국인은 꼭 필요해서 라기 보다는 자기를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목적에서라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기에 이 정도의 가격을 낸다 해도 절대 큰 부담이 안 될 것이라고까지 생각 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만약 가격의 규모가 큰 물건이라면 결코 그렇게 요구 할 리 없었을 것이다. 가령 100만 루피아 하는 물건을 200만 루피아를 내라고 할 터는 없는 것이다.



비록 거칠고 허술한 솜씨로 만든 물건이지만 바람에 떨어진 야자 잎줄기들을 돌아다니며 모아 빗자루를 만들면서 삶을 위하여 내 손으로 무언가 보탬이 될 것을 찾아 만드는 보람과 기쁨으로 부지런히 땀을 흘렸을 것이 틀림없다.

아침산책 길에서 만났기에 주머니에 돈이 없어 대금은 내일 주마하고 그 다음 날 그 집 앞을 지나가며 마침 집 앞을 쓸고 있는 수떠니 부



인에게 빗자루 값을 건넸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사코 관두라고 한다. 안 주어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아는 나로서는 한사코 돈을 손에 쥐어주고는 집으로 왔다. 하루 동안 이 아주머니도 극히 값싸고 하찮은 빗자루 하나를 나에게 팔고 나서 얼마나 이 생각저 생각을 하였을까를 짐작해 본다. “내가 녀 비싸게 불렀나?”, “아니 나는 미스터 문이 값을 깎을 줄 알았지”, “그 정도는 평소 미스터 문의 형편에서 아무것도 아닐거야” 그렇게 말이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도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이해하게 되었다. 어렵다고 하여 몇 번 정도는 필요한 물건이나 식품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도운다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기 십중팔구다. 계속 도움 받을 기대로 스스로 어려움을 타계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도움이라기보다는 한 인생

을 도움만 받고 사는데 익숙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수떠니 아주머니처럼 주변에서 취할 수 있는 재료로 무엇이든 만들어 들고 나온다면 이웃들은 여러 가지 측면을 헤아려 기꺼이 사주리라 믿는다. 나 역시 앞으로 스스로 돕는 이웃으로부터는 값을 좀 더 쳐주더라도 구입을 하여 작은 부분이나마 그들의 소망과 가능성과 땀 흘려 일하여 버는 기쁨을 누리는데 일조 할 생각이다. 야자수에서 나오는 것에서는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듯이 인생 노정에서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고 헛되지 않게 살아가야겠다는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얻은 새로운 교훈이요 결실이라는 생각에 감사하다.

이미 갖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는 지혜를 보게 된 것이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손으로 만들어 이를 통해 값진 땀의 대가를 거두어 감사하며 살아가는 수떠니 아주머니의 삶에는 진정한 행복이 올 수밖에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순박한 자바사랑의 꿈, 그리고 조국의 역사적 상흔의 비가

8월 13일 오후 5시, 자카르타 코리아센터 한인문화회관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회장:서미숙)에서 주관한 이태복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인<자바의 꿈>출판기념회와 함께 대한독립열사와 위안부 사진전이 개최되어 인도네시아 한인들에게 가슴 뭉클한 울림을 선사했다. 또한 이태복 시인의 시집출판 후원을 위한 한국 대표 시인인 공광규 시인의 먹그림 전시도 병행되어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로 교민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특히 공광규 시인의 먹그림 주제는 이태복 시집<자바의 꿈>본문 중에서 시의 맑은 심상과 자바의 풍경을 먹선으로 형상화 한 그림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한인상공회의소 홍중서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태복 시인의 시집 출판과 사진 전시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인니문협 회원들은 물론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특별히 안선근박사의 통역으로 인도네시아인이 초청되었는데 그중에서 사산자바문화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Bp수나르와 인니 코미디언 출신 국회의원인 Bp. Dedi Gemular는 양국 간 민간 문화교류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이태복 시인에게 감동과 고마움을 전하며 덕담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창범 한국대사는 축사를 통해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이고 8.15 광복절을 이틀 앞둔 시점이라 이태복 시인의 시집<자바의 꿈>과 함께 전시되는 대한독립열사와 위안부 사진전이 더욱 뜻깊게 와 닿는다고 언급하였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우리 역사의 상흔이 남아있는 암바라와에 기념비라도 세울 수 있도록 다방면

으로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미숙 인니문협 회장은 문학적 공감을 함께 나누고 감성을 공유하는 문우이기에 오늘 같이 창작의 결실을 맺는 날이 가장 보람 있고 기쁜 날이라며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소박한 꿈에 도전하라는 메시지로 훈훈한 분위기를 전달하였다. 이어서 이날의 저자인 이태복 시인은 시집<자바의 꿈> 탄생 과정과 대한독립열사와 위안부 사진전을 개최하기까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담하면서 소박한 언어로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따뜻한 격려와 큰 박수를 받았다.

사산자바문화연구원 원장이기도 한 이태복 시인은 5년 가까이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살라띠가에 살면서 자바지역 사람들과 문화적 소통을 이어왔다. 우리 민족의 아픈 상흔이 남아있는 동남아시아 옛 위안부 시설이 있던 암바라와를 몇 번씩이나 직접 방문하여 대한독립열사들의 흔적과 조선 소녀 위안부가 거주했던 현장을 시집과 사진으로 담아내어 전쟁의 만행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외에 알리고 있는 시인이기도 하다. 시집 <자바의 꿈>을 해설한 공광규 시인은 우리 조국의 역사적 상흔을 시에 수용하고 있는 점이 지난 시집과 다른 큰 의미를 갖고 있기에 자바의 아름다운 풍광과 이국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망향, 비극적인 조국의 역사적 상흔이 시를 통하여 사람들의 뇌리에 오래오래 기억되어 치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염원하였다. 부디 이태복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인<자바의 꿈>이 국내외에서 많은 독자들을 만나고 인도네시아 자바사람들의 삶을 사랑하고 긍정하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공생하는 시인의 온전한 꿈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자료 제공: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

# 예술의 꽃을 피우다



진정한 참여형 축제에 참가해 보시겠습니까?  
 재인니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이하.문예총)에서는 지난 8월 9일 금요일 2019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예총은 지난 3.1절 기념공연 문화공연을 관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기념행사에 문화컨텐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문화행사에 정성으로 참가해 주신 문화 예술단체 모두에게 늦었지만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한 매년 10월이오면 우리정부에서 주관하는 한국문화주관에 이번에도 우리 문예총이 일주일간의 풍성한 문화 예술 행사(제 6회 문예총 종합예술제)의 중요한 한 꼭지를 기획하여 참여하게되어 사업계획을 주관할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 교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행사 구성안 등을 토의하고 결정 후 총회를 마쳤습니다.

문예총은 현재 7대회장 박형동 회장을 중심으로 250여명이 넘는 회원으로 단체 구성은 공연팀과 전시팀으로 소속단체가 16개입니다. 2008년 1월 창단 이래 한국문화를 인도네시아에 널리 알리고 또한 재인니한인동포 자생문화 예술을 발굴하고 교류하고 활성화를 추구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항상 각 분야의 영역에서 진솔하고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는 단체 회원들과 함께 활발한 문화 예술 참가로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연팀으로는 한인무용단, 스트링 오케스트라(KISO), JKCC어린이 합창단, 아르떼 여성합창단, 자카르타아버지양상블, 한바패(풍물사물),

국악사랑(풍물), 극동방송 합창단, 색소폰동호회, 음악협회 전시팀으로는 한지공예, 서예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월화차회, 자카르타 사진클럽(2019년가입)이 있습니다. 이번 제6회 문예총 종합예술제는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축제가 롯데 에비뉴 메인아트리움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화 예술 축제에 교민 여러분들의 재능의 꽃을 만발하게 피우실 장을 마련하여 교민 모두를 초대 하려합니다.

1318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대회, 릴레이 재능기부 런치미니콘서트 등 끼와 열정이 넘치는 대한민국 청소년 및 일반인, 예술인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참여 하시고 싶은 분이나 단체는 문예총 사무국으로 문의 (총 예술감독.김혜정 0877 8048 4971)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참여형 축제를 위해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제공: 문예총)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레드엔젤(2020 올림픽 응원단)과 도쿄올림픽 청년응원단 파견 업무협약 체결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청년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일깨울 기회로”

2019년 8월 2일,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자카르타 소재)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올림픽 응원단 레드엔젤은 2020도쿄 올림픽을 1년 앞두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박재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레드엔젤 인도네시아 한인 청년응원단 파견을 위하여 업무협약은 올림픽을 기회로 한민족을 하나로 결집하고 차세대 청년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10만명의 레드엔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메달을 목표로 훈련에 임해 온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해 힘을 실어주고 그것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미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재한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은 “특별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도네시아에서만 머물러야 했던 다문화가정 청년들과 올림픽에 열정을 갖고 대한민국을 응원할 한인청년들이 함께 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요사이 경제, 정치적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일본에서의 여러 경기들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현지에서 한국선수들을 응원하는 청년들에게는 사명감으로 그 열기를 미리 짐작케 한다.

한편 레드엔젤은 자생적으로 응원단을 꾸려나가는 것이 목표다. 세계 각국에 있는 대한민국 청년 1004명을 일본 원정 응원단 파견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실질적이며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세계 속 한인 지도자 및 한인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레드엔젤은 싱가포르와 홍콩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미국LA, 영국, 브라질, 중국 북경, 중국 상하이, 베트남, 필리핀의 한인기업과 2020도쿄올림픽 세계한인청년 1004명 2020 도쿄올림픽 청년 응원단 파견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을 협의 중이다.

# 이젠 집에서 SAMBAL 을



한국의 고추장, 된장처럼 인도네시아요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스,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소스인 삼발을 소개합니다.

인도네시아 소스의 대명사 삼발, 외국인 특히 매운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이 생 야채 혹은 굵거나 데친 야채를 찍어먹기도 하고 고기나 생선요리를 먹을 때 곁들이며, 그대로 밥에 비벼먹기도 하는 만능 짬장 소스인 삼발을 만들어 보아요.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고 식재료를 넣고 빼고하면서 취향에 맞출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삼발 뜨라시는 고추를 잘게 다지듯 썰어, 다진 양파, 민트, 마늘, 피쉬소스(혹은 새우젓갈), 식초, 소금, 라임즙 등을 넣어 만들어내는 혼합 소스로 다량의 고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음식 중에서도 매운 소스에 해당된답니다.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는 다량의 재료가 섞인 소스이다 보니 취향저격이죠. 다양한 한국요리에도 삼발소스를 응용해 보세요. 삼발 소스는 단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우 페스토, 과일, 간장소스, 해산물, 고기 등 다양한 첨가가 가능하기에 첨가물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네요. 무려 300가지의 종류의 삼발 소스가 있다고 하네요.



Cabai keriting



Cabai rawit hijau



Cabai rawit merah



Bawang putih



Bawang merah



Tomat



Jeruk limau



Gula merah



Garam



Terasi

# 만들어 먹어요~

COBEK(쪄백)이라는 돌 절구는 다양한 크기가 있으나, 보통 직경 20cm정도면 적당하고 시장에서 4만루피아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재료>

매운 맛 고추 3종(짜베 끄리땡, 짜베 라윗 히자우, 짜베 라윗 메라), 마늘, 샬롯(바왕메라/ 적양파로 대체 가능), 토마토, 저룩 리마우(혹은 라임), 덩어리 코코넛 설탕(혹은 그냥 설탕), 가는 소금, 프라시(새우젓갈류/피쉬 소스대체 가능)

\* 맛의 베이스는 매운 맛이지만 매운 맛을 순화시키기 위해 과일을 좀 더 넣으면 좋아요. 무엇과 결들이냐에 따라 그때그때 응용하면 됩니다.

## [만드는 순서]

1. 준비한 식재료 중 저룩 리마우, 토마토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다져준다. (요새는 갈아주는 기기를 많이 사용한다)
2. 토마토는 씨를 제거하고 과육만 다져주고, 저룩리마우즙을 넣는다.
3. 후라이팬에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볶아준다.
4. 매운 재료들을 함께 넣고 짠다.
5. 피쉬 소스, 후추, 소금, 설탕을 첨가한다.

\* 만들자마자 먹을 수도 있지만 뜨거운기름을 첨가하기도 해서 일정기간 보존도 가능합니다.

## 이렇게 드시면 맛있어요!

인도네시아 한인 교민이었던 오효숙씨네 레시피 공개  
-가지구이에 곁들인 우리집 삼발-

1. 양파를 잘게 다지고
2. 마늘, 생강 곱게 갈고
3. 갈은 소고기와 함께 볶는다.
4. 시판 용 삼발 프라시에 설탕, 토마토 케찹을 섞어 완성.

가지는 올리브 기름에 살짝 구워서 볶은 삼발에 찍어 먹으면 미소가 절로 난답니다.



편집국 제공



# 나는 바하사로 수다떠다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어떤 사람이 뻘뻘스러울 때는 ‘얼굴이 두껍다’ 라고 하잖아요? 신기하게도 인니어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Mukanya tebal banget. ‘얼굴 진짜 두꺼워’ 라고 하거나, 관용어 ‘tebal muka’ 를 그대로 서술어에 붙여서 Dia tebal muka.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Muka(얼굴)를 사용한 재밌는 표현이 또 있는데, 평소에는 일을 열심히 안 하다가 꼭 중요한 행사에 나타나서 얼굴을 쑥~하고 내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얼굴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요 ^^; 그런 행동을 cari muka라고 하고, 줄여서 carmuk [짜르묵] 이라고 해요. 세상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있지요~~허허허(갑자기 사람 좋은 웃음!) 모두가 둥글게 둥글게~ 잘 살아가는 세상이 오길 바라면서.. 이번 달에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표현을 공부해 볼까 해요. 바하사로 수다떠는 그날까지~ 열공!

## 웃그 사람 어때? Orangnya gimana? = Orangnya seperti apa?

Dia rajin. 성실해. = Orangnya rajin banget. 사람이 참 성실해.  
이렇게 아래 단어를 골라서 활용해 보세요.



- ✓협조적이다 kooperatif
- ✓잘 도와준다 suka menolong
- ✓친절하다, 다정하다 ramah, lembut, halus
- ✓붙임성이 좋다(성격이 좋다) supel [수쁠], mudah bergaul
- ✓오픈마인드다 terbuka (반대는 tertutup)
- ✓똑똑하다 pintar
- ✓창의적이다 kreatif
- ✓이해심이 많다 pengertian
- ✓배려를 잘 해 준다 perhatian
- ✓성실하다 rajin, kerja keras (열심히 일한다)
- cf) 완벽주의자 perfeksionis



- ✓이기적이다 egois
- ✓권위적이다 bossy(영어 그대로), tukang perintah (perintah ‘지시’ tukang ‘기술자’ 인데 뭐만 있으면 시켜대는(?) 시키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써요. 거짓말쟁이를 tukang bohong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 ✓못되다 jahat, kejam[끄잠]
- ✓맘에 없는 말을 잘한다 pintar basa-basi
- ✓스쿠루지 같다(돈 아껴서 똥 될 거 같은~) pelit [빨릿]
- ✓위선적이다 munafik, 헉 얼굴이 두 개? bermuka dua



- ✓ 끈기가 있다 ulet [울룻]
- ✓ 인심이 좋다 murah hati
- ✓ 책임감이 강하다 bertanggung jawab
- ✓ 항상 에너지가 넘친다  
selalu bersemangat, energik  
[에너르깅]
- ✓ 밝고 명랑하다 ceria [찌리아]
- ✓ 정직하다 jujur
- ✓ 능력이 있다 berkompeten
- ✓ 매력적이다 memesona [므므소나]  
cf) mempesona [므뽀소나] 라고 하  
기도 하는데 맞춤법에 맞는 단어는  
memesona예요. 매력을 뽀뽀! 발산하고  
다니면 memesona~ (어근 pesona)
- ✓ 차분하다 kalem [갈름]
- ✓ 예의바르다 sopan
- ✓ 농담을 잘한다 suka bercanda,  
humoris
- ✓ 권위가 있다(무게가 있고, 존경할만하다)  
berwibawa (인도네시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 ✓ 겸손하다 rendah hati, sederhana  
잘난체하지 않고 자신을 낮출 줄 알다  
bersahaja



\*\*sombong : sombong(지가 잘난 줄 알다) 이 단어는 친한 친구한테도 ‘비싸게 군다’ 라는 의미로도 써요. 갑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기면, 친구들이랑 소원해 질 때가 있잖아요. 모임에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 Kamu sombong, ya sekarang~ 너 요새 좀 비싸게 군다 어? 이렇게 써요.



- ✓ 피를 잘 부린다, 나쁜 의미로 머리를 잘 굴린다 licik
- ✓ 책임감이 없다 tidak bertanggung jawab
- ✓ 화를 잘 낸다 galak, judes [주드스]  
Mukanya selalu judes 항상 무표정이고 화난 것 같은 표정으로 다니면서 상대방을 차갑게 대하면~ judes
- ✓ 겁쟁이 penakut
- ✓ 자신감이 없다 kurang PD [꾸랑 빠테]  
\*PD : percaya diri 자기자신을 믿다
- ✓ 무능력하다 tidak berkompeten
- ✓ 거만하다 erogan [에로간], sombong\*\*
- ✓ 덜렁대다, 칠칠하지 못하다, 아무지지 못하다  
ceroboh [찌로보ㅎ] 반대로 꼼꼼하면?  
teliti
- ✓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 kurang sopan
- ✓ 게으르다 malas, pemalas (게으른 사람)  
cf) 일하기 싫어하다(~하기 귀찮다)  
malas kerja
- ✓ 수다스럽다 cerewet [찌레웻]

‘말이 많다’ 는 특징은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겠지만, cerewet을 잔소리가 많다’ 라는 뜻으로도 써요. 하지만 늘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 🍷 BTS 멤버들의 실제 성격은 어떨까요?

저는 Army (방탄소년단 팬클럽)은 아니지만~  
국위선양하고 있는 매력적인 방탄이들의 성격이 어떤가 한번 보려구요

### 정국

☞ 말보단 행동 타입

Sedikit berbicara, banyak bertindak

☞ 보기보다 남을 잘 신경 안 쓴다

Lebih cuek dari perkiraan

☞ 매너 좋고 다정다감하다

Perhatian dan lembut

### 제이홉

☞ 마상(마음의 상처)을 잘 입는다

Mudah tersinggung, Mudah sakit hati

☞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꿀 먹은 벙어리

Mendadak jadi pendiam di depan cewek  
yang dia sukai

### 진

☞ 상대방 기분을 잘 맞추고 배려한다

Bisa merasakan apa yang dirasakan orang  
lain, perhatian dan pengertian  
(즉, 공감능력이 있다! empati)

☞ 화나면 얼굴이 바로 티 난다

Tidak bisa menyembunyikan perasaan  
Kelihtan banget kalau marah



### 뷔

☞ 직설적이다

Berbicara apa adanya (있는 그대로 말하다)  
terkadang berbicara tanpa disaring (거르지  
않고 말할 때도 있음)

☞ 은근 소심하다

Pura-pura berani padahal penakut

\*penakut : 겁쟁이

### RM

☞ 생각이 깊다, 어른스럽다

Dewasa

☞ 완벽주의자, 하지만 허당끼가 있다

Perfeksionis, tapi terkadang jadi ceroboh

☞ 말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는 타입

Banyak berpikir sebelum berbicara

### 지민

☞ 야망 가득하다

Ambisius

☞ 배려가 몸에 베어 있다

Perhatian, baik dan pengertian

☞ 애교 많음

Berlaku imut dan manja (imut 귀여운)

(집에서 엄마한테 물 갖다 달라고 하는 왕같은 아  
이들한테도 manja라고 해요)

### 슈가

☞ 겉으로는 무뎡뎡해 보이지만 내 사람한테 잘한다

Tampaknya (atau luarnya) agak kaku,  
tapi sebenarnya sangat perhatian dan penyayang  
(penyayang terhadap orang-orang terdekat)  
\*penyayang 애정이 많은 사람(어근은 sayang)





★ perhatian은 ‘관심, 주의’ 라는 명사로만 사전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는 성향을 지닌 사람을 설명할 때도 써요.

Dia orangnya sangat perhatian. 그 사람은 정말 배려심이 깊어.

비슷한 말로 pengertian 은 ‘이해’ 라는 명사로도 쓰기도 하지만, 사람을 설명할 때 갖다 붙이면 Orangnya pengertian. 그 사람은 이해심이 깊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인니어의 재밌는 특징은 우리말에서처럼 ‘누가 어떠하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어떠한 사람이다” 이렇게 명사형을 서술어에 쓰는 경우도 많아요.

Dia pekerja keras. (He/She is a hard-worker) = Dia (be)kerja keras. =Dia rajin bekerja (He/she works hard). Dia penyayang. Dia pemalu .

### 🌀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santai

Orang Indonesia santai~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느긋해~ 이런 표현 많이 들어 보셨지요? 영어‘easygoing’ 과 비슷하데,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요. Ah, orang Indonesia terlalu santai.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천하태평이어서 말이지...’ (인도네시아 사람들 중에도 성격 급한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느긋한 사람을 보면 답답한가 봐요 ㅎㅎ) 이렇게 사람의 성향이나 특징을 설명하기도 하고, 다양한 쓰임새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우리말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다.

#### [1] Santai saja 천천히 하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relax~~)

Agung : Sani, maaf, aku mungkin telat 10 menit. 사니야, 미안, 나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Sani : Enggak apa-apa. Santai saja. 괜찮아. 천천히 와.

(우리말 그대로 직역해서 datang pelan-pelan 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알아는 들겠지만... 그래도 멋지게 santai saja~ 한번 써 보세요!)

Melisa : Mr. Kim gimana orangnya? Galak enggak? 김부장님 어떠셔? 화 잘내?(무서워?)

Sani : Enggak. Kamu enggak usah khawatir. Santai saja. 아니 너 걱정할 필요 없어. 맘편히 가져. Soalnya beliau baiiiiik banget. 지~~~~인짜 좋으시거든.

#### [2] Santai saja. 그냥 (쉬고) 있어.

주말에 친구한테 말을 걸어요. Lagi apa? (=Lagi ngapain? 뭐해?) 이때 돌아오는 대답이 ‘santai saja’, ‘lagi santai’, ‘santai’ 라면 ‘응 그냥 있어’ 이런 뜻이에요.

바하사 써먹기 ★ 실력을 쑥쑥 키우는 질문은 여기로

✉ nusantara817@daum.net



# 세상을 구하는 아이들



학생기자 Sinarmas World Academy 김재이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 “우리는 모든 아동이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꿈꿉니다.”

혹시 이 문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바로 전 세계의 빈곤 아동을 돕는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의 표어와 이념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29개 회원국이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입니다.

글쓰기 자료 조사를 하던 중 제 눈길을 사로잡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바다만큼 큰 집을 지어 할머니에게 선물할게.”

호기심에 클릭해 방문하게 된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에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경상남도 진해의 향구 마을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여덟 살 소년 진하는 같이 놀 또래도 없습니다. 30분 떨어진 거리의 학교를 혼자 걷고, 조개 까는 일을 하러 간 할머니를 밤늦도록 기다리는 진하의 적막한 일상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이런 진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다만큼 큰 집을 지어 할머니에게 선

물하고 싶다는 진하가 대견하게 느껴진 건 제가 철이 들어서일까요?

때마침 부모님께서 중학교 입학 기념으로 노트북을 사주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노트북을 빌려서 학교 과제를 했던 제가 바라고 바라던 선물이었습니다. 기뻐하던 것도 잠시. 눈앞에 진하가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개인적인 욕망’과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돕는 일’ 사이에서 저울추가 전자 쪽으로 기울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고민하던 저는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진하를 후원하고 싶다는 뜻을 부모님께 밝혔습니다. 제 말에 적잖이 놀란 부모님은 재차 저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실까요? 제가 꿈꿔오던 노트북을 포기하고 후원을 택한 데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지금 갖고 싶은 것이 너에게 꼭 필요한지 생각해 봐. 다른 대안은 없는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도 곰곰이 따져야 해. 일단 결정을 한 뒤에는 다른 변수는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거야. 그런 변수들은 너를 ‘결정 장애’로 이끌 뿐이야!”

‘다른 대안’ 인 엄마의 헌 노트북을 물려받아 이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 제 마음은 한없이 뿌듯합니다. 비록 제가 후원하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인다면 진하처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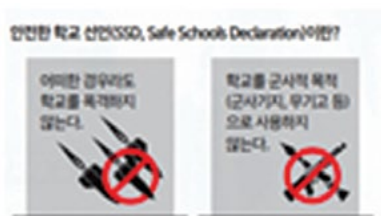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이 있는지.

‘더 가치 있는 일’ 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 자세히 알아보아요

세이브더칠드런은 국내외에서 아동 교육과 보호에 앞장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세이브더칠드런 본부를 비롯해 전국에 23개의 지부와 복지관, 아동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가정 위탁 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설립 100주년을 맞은 세이브더칠드런은 전쟁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자는 <Stop the War on Children>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에 민간인과 아동을 보호하자는 ‘교육 시설에 대한 군사 행동 금지’ 을 요구했습니다. 즉, 어떤 경우라도 학교를 공격하지 않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쉽게도 한국 정부는 아직 ‘안전한 학교 선언(SSD, Safe Schools Declaration)’ 에 동참하겠다고 서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G20 국가인 한국이 아동보호에 앞장서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5월 17일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창립 100주년’ 하니 떠오르는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입니다. 한국 정부도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벌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한인회, 한인포스트가 주최하는 뜻깊은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 개별 지원 아닌 지역사회 단위 지원

세이브더칠드런의 후원금 아동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결연 아동이 속한 지역사회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결연 아동은 연령과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개별 지원’ 이 불가능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후원 관련 안내문을 읽어 본 후 ‘지역사회 단위 지원’ 방식에 큰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별 지원은 다른 아이들과의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질투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연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아동의 삶을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동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사명에 동참해주세요.



\* 모든 사업은 올해 안에 완벽에 도달 예정입니다.

검색창에

아동에 대한 전쟁을 멈춰라

를 검색해 보세요.

세이브더칠드런의  
‘Stop the War on Children’ 캠페인



에글렌타인 잭 여사(1876~1928)와 그녀가 작성한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 선언문

## 개별 지원 아닌 지역사회 단위 지원

세이브 더 칠드런은 한 여자의 헌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19년, 당시 기아위원회에 속해있었던 에글렌타인 잭(1876~1928) 여사와 그녀의 동생 도로시가 설립한 이 기구는 현재 28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올해로 10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구를 건설하는 것이 꿈이었던 두 자매는, 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기아와 식량부족 등의 문제에 관여하면서 스웨덴의 Ridda Barnen(뜻: 똑같은 의미)이라는 단체가 출범했을 때, 자매단체로 함께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20년 중반쯤에 수많은 이들이 빈곤과 가난에 시달려 기금 모금에 절대적으로 타격이 오자, 이에 잭 여사는 5개의 항

으로 이루어진 아동권리 선언문(어린이들의 권리에 대해 인식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발표문)을 작성해 국제 연맹에 제출했습니다. 이 선언문이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 선언문입니다. 잭 여사와 기구 소속 인물들은 이후에도 아동권리를 주장하는 운동과 세이브 더 칠드런 단체 개선을 위해 힘써, 이 기구는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세계 최대의 비영리 기구로써 12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작은 인격체’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늘어한다면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아직 살만한 세상’ 이 ‘희망으로 가득 찬 세상’ 이 되리라 믿습니다.

# “World HANSIK Festival”

## 인도네시아 유소년 축구대회에 한식을 알리다

지난 8월 17일 재인도네시아 외식업협의회(회장 전성현)는 제 74주년 인도네시아 독립 기념을 맞아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 (KONI, 회장 Pak.Marciano, 한국국제특사 배응식)에서 주최하는 제1회 KONI배 12세 이하 유소년 축구대회에 선수, 학부모 그리고 KONI 조직위원회 임원 1,000 명에게 불고기 덮밥, 닭강정, 떡볶이 그리고 무지개 떡을 제공하는 “World HANSIK Festival” 행사를 개최하였다.



▲ 행사에 참여한 KONI, 외식업협의회 관계자

이번 유소년 축구대회는 17일과 18일 양 이틀간 땅그랑 “Lapangan Sepak Bola Galapuri” 축구 경기장에서 16개 팀이 경기를 펼쳤으며 17일 하루 한식 제공 행사에 1,000명의 인원이 한식을 맛 볼 수 있었다.

전성현 회장은 “한국보다 이틀 늦은 광복절이지만 광복을 맞는 마음은 우리 한인동포와 같이 큰 축제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



다.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개최하는 유소년 축구대회인 만큼 한식을 홍보하는데 더욱 세심한 준비를 하였다.” 고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대형 한식 풍선 캐릭터와 Food Truck 앞에서 사진을 찍는 가족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고, 특히 김치와 불고기, 떡볶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현지인을 모습을 보며 한식 홍보의 계기가 된 것 같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고 소감을 말했다.

조직위원회 Pak Taufik 위원장과 전성현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식 홍보와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번 “World HANSIK Festival” 행사에는 한식진흥원과 농수산식품부 그리고 재인도네시아 외식업협의회에서 후원하였다.

# 한국어 번역서 《막스 하벨라르(Max Havelaar)》 출판기념회 열려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서 내·외빈 참석한 가운데 번역가와 편집장 북토크도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에서 지난 8월 10일, 양승윤 한국명예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와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의 저자인 배동선 작가가 공동 번역하고 사공경 한인문화연구원장이 에필로그를 담당한 《막스 하벨라르》 출판기념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종민 총영사, 박재한 한인회장을 비롯하여 여러 내·외빈들과 반뜰 주 르박 군의 물따뜰리 박물관장 우바이딜라 무크따르(Ubaidilah Muchtar)씨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막스 하벨라르》는 물타톨리라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진 네덜란드 작가 에뒤아르트 다우어스 데 커르가 1860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네덜란드 식민지에서의 노동 착취를 세계에 알렸다. 원서는 19세기 유럽 문학의 걸작으로 꼽힌다.

배동선 작가가 《막스 하벨라르》 출간기념 사인회를 가진 자리에서 배동선작가와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작가 배동선

## 1. 《막스 하벨라르》를 번역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2016년 12월 자카르타 멘땡의 뚜구 꾀스트링 팔레이스 식당에서 헤리티지 코리아 섹션 이수진 회장의 소개로 양승윤 교수님, 사공경 선생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 식당의 물타톨리 룸에서 한참 동안 막스 하벨라르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양 교수님이 정식으로 막스 하벨라

르 번역을 제의하셨습니다. 저명한 학자가 무명 소설가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경우는 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것이었고 기본적으로 번역은 내게 낯선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내민 양 교수님 손을 굳게 잡은 것이 막스 하벨라르 완역본 번역 작업의 시작이었습니다.

## 2. 번역 작업 시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제가 5개월 작업한 초벌 번역을 양승윤 교수님이 2년간 다듬고 교정하며 오역을 바로 잡으며 책의 퀄리티를 크게 높이셨습니다.

이 소설 원전이 네덜란드어로 쓰여졌다는 것, 160년 전 작품이라는 것, 그래서 용어나 문화, 사회상, 역사 인식 같은 게 현대 한국인들에게 매우 생소하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런 것들을 독자들에게 잘 이해시킬 수 없다면 번역의 의미가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네덜란드어 원전 내용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 영어번역본 두 권, 인니어본 한 권 그렇게 세 권을 펼쳐놓고 작업한 것은 신중을 기해 오역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일이 비교작업을 하면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었던 것이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의 퀄리티를 담보하는 작업이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보람 있기도 했습니다.

## 3. 한국 역사 소설이나 역사 전문서 집필 계획은 있으신가요?

어느 한 시대에 조예가 있다 해서 그 나라 역사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 역사를 안다고 다른 나라 역사들도 망라하여 섭렵한 건 아닙니다. 한국 역사를 소재로 전문적 역사소설을 쓰려면 상당한 사전작업과 공부, 고증을 해야 하는데 그건 아무래도 어려울 듯합니다. 오히려 수카르노 시대의 현대사를 썼으니 그 후속으로 수하르토 시대의 현대사나, 수카르노 이전의 인도네시아 근대사를 쓰려고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는 중입니다. 또 다른 인문서가 되는 거죠.

소설을 쓴다면 역사소설보다는 일상의 교민 생활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 4. 창작과 차별화된 번역 작업만의 매력이 있는지요? 번역 시 번역가의 창의성이 개입할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이 두 질문에 한꺼번에 답합니다. 번역도 분명한 창작의 일종입니다. 단지 일반 창작은 그 범위와 방향이 시야가 닿는 전방향을 포함하지만, 번역은 원저자의 시야 내에서 움직여야 하므로 운신 공간이 크게 제한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 인문서나 교범 같은 거라면 뜻과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이니 오히려 번역가가 얼마든지 다양한 표현력을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거꾸로 소설 같은 창작물의 경우엔 말투와 뉘앙스, 표현방식까지 원저자의 의도에 충실하려니 번역가의 운신의 폭이 대폭 줄어들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외국 작가의 표현방식과 기법을 좀 더 깊이 배우게 되고 때로는 사고방식과 철학의 깊이를 알게 된다는 점에서 번역은 역시 매력적인 작업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도 영문번역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고 나름 자부심을 가져 봅니다.

#### 5. “문학은 내게 ooo이다, 인도네시아는 내게 ooo이다.”

인도네시아 교민사회에서 자카르타 ‘향토작가’로 평가받으며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신 작가님에게 문학과 인도네시아는 어떤 의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학과 감성에 대해 얘기하면 5초 안에 재떨이가 날아오는 세계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문학은 도루코 면도날처럼 유연하고 날카롭고 감상을 허용하는 자유 세계입니다. 문학은 내게 ‘도루코 면도날’ 이다.

25년간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이곳은 내게 그토록 정겹고 그토록 밍살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가치가 인도네시아와 함

께해야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젤라틴 캡슐 벗겨진 스칼렌처럼 인도네시아는 내게 ‘쓴 강장제’ 다.



#### 6. 배 작가님이 궁금한 독자들은 Daum 블로그에서 'beautician'을 입력하라!

그만큼 꾸준히 블로그를 통해 개인 칼럼과 신작, 일상 등을 공유하고 계신데요, 블로그를 잠재 독자들과의 소통의 통로로 활용하시는 건가요?

블로그는 스킵은 아이디어와 쉽게 되돌아보고 싶은 기록들을 담아놓는 창고입니다. 다이어리에 써 놓거나 서류철에 찢거나 USB 플래시 디스크에 담아놓는 것보다 블로그에 보관하는 것이 나중에 더 쉽게 조회, 검색할 수 있죠. 그리고 한글 자료가 없는 인니어, 영어 자료들을 번역하여 올려놓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무료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굳이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엇이든 써 담는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독자를 끌기 위해 자극적 포스팅으로 어그로를 끌거나 특별한 마케팅을 하지도 않습니다.



양승윤 명예교수(한국외대), 사공경 한인문화원장, 전영랑 편집장(도서출판 시와진실), 배동선 작가(우로부터)

취재 : 이영미(한인뉴스 편집부)

# “일본인으로 알려졌지만... 인도네시아 독립 위해 싸운 한국인 최소 5명”

양철성 · 국제만 등 소속 부대 기록에 5명 일본 이름 아래 주소 대신 ‘납치’

‘시로야마, 아카키, 마사히로, 마쓰모토 그리고 야나가와.’

인도네시아 독립을 위해 싸운 외국인들이다. 이름만으로는 누가 봐도 일본인이고, 현지인도 대개 그렇게 알고 있었다. 반면 인도네시아 학계와 역사단체는 이들이 모두 한국인이라고 단언한다. 창씨개명하고 1942년 9월 연합군 포로감시원으로 인도네시아에 온 조선인이라는 것이다.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을 맞아 현지에선 이들의 국적을 바로 알리는 작업이 한창이다.

국립인도네시아대(UI·우이)와 인도네시아역사연구협회(히스토리카)는 지난 16일 ‘독립 전쟁에서 한국인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350년간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다 1942년 일제에 점령당한 인도네시아는 일제가 패망하자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선언했으나 다시 식민지화에 나선 네덜란드와 1949년 12월 29일까지 독립 전쟁을 치렀다.

누르 아이니 세트야와티 가자마자대 사학과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군 여러 명이 참전하는 등 많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독립을 위해 싸웠다”라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로스티뉴 우이 한국학과 교수는 “1942~1945년 인도네시아에서 연합군 포로감시원으로 일한 20~35세 조선인이 그들”이라고 설명했다. 아돌바시드 히스토리카 회장은 “젊은 세대는 이런 역사와 인물들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엔 우이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그나마 국내에도 알려진 양철성이다. 한국일보는 ‘인도네시아 독립 영웅 양철성, 그의 이름 딴 도로 생긴다(3월 4일자 1, 8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전날인 16일 국립인도네시아대(UI)에서 진행된 ‘독립 전쟁에서 한국인들의 역할’ 세미나. 왼쪽부터 자이니 UI 전 한국학과장, 누르 아이니 세트야와티 가자마자대 사학과 교수, 로스티뉴 UI 한국학과 교수, 헨디 조 히스토리카 회원, 배동선 작가.

면)’를 통해 양철성의 삶을 재조명한 바 있다. 야나가와 시치세이라는 일본이름의 포로감시원 양철성은 1945년 가을부터 200~300명 규모의 ‘과팍 왕자 부대(Pasukan Pangeran Papak)’에서 활약하며 인도네시아 독립을 위해 싸웠다. 그러나 조선인 동료들로부터 ‘일본의 똥개’라 불릴 만큼 골수 친일예, 1949년 8월 10일(5월 설도 있다) 처형될 당시 기미가요를 부르고 “천왕 폐하 만세”를 외쳤다는 달갑지 않은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 “양철성은 인도네시아의 영웅이지만 한국에선 영웅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어,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양철성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린다” (배동선 작가)는 게 현실이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인물은 양철성처럼 포로감시원 출신으로 과팍 왕자 부대에 소속된 국제만이다. 일본이름 시로야마, 인도네시아이름은 수바르조인 국제만은 1948년 11월 체포된 양철성보다 먼저 잡혔으나 탈출했다가 다시 붙잡혀 1948년 10월 26일 처형됐다. 동료들의 증언 덕에 1975



년 ‘외국인 독립 영웅’으로 추서된 양칠성과 달리 국재만의 활약은 알려진 게 거의 없고 처형 직전 사진만 남아있다.

우이 측은 “확인 결과, 파팍 왕자 부대에 한국인이 적어도 5명은 있었다”고 19일 한국일보에 밝혔다. 당시 자료에 모두 일본인으로 표기돼 있지만, 신상명세서를 연구해 보니 일본 주소 대신 ‘납치’라고 적힌 사람들이어서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게 납치로 분류된 인물이 아카키, 마사히로, 마쓰모토다. 아카키는 전투 중 사망한 아디월요(인도네시아어) 정수호라는 설이 있다. 나머지는 독립 전쟁 후에도 생존해 인도네시아에 남았거나 일본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될 뿐, 자세한 사연은 알려진 게 없다. 양칠성의 한국인 동료가 8명이었다는 설과 파팍 왕자 부대 안에 한국인 부대가 따로 존재했다는 증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인도네시아 독립을 위해 싸운 한국인의 수는 더 많았을 수도 있다.

히스토리카 회원으로 양칠성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든 언론인 헨디 조씨는 “독립 후 인도네시아는 우리를 도왔던 한국인들을 잊었다”고 역설



한국 이름과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이 뚜렷하게 새겨진 인도네시아 가루트시 관립영웅묘지의 양칠성 묘비. 드릭뉴스 캡처

했다. 이에 히스토리카와 우이 등은 양칠성이 최후를 맞은 서부자바 가루트(Garut) 현장에서 영웅의 날인 11월 10일 ‘양칠성로(Jalan YANG CHIL-SUNG)’ 명명식을 할 예정이다. 양칠성은 외국인 독립 영웅으로 추서된 1975년부터 가루트 관립영웅묘지에 묻혀 있다. 광복 50주년인 1995년엔 한국 시민단체 등의 노력으로 일본어 이름 묘비가 ‘KOMARUDIN(양칠성의 인도네시아어 이름), YANG CHIL-SUNG, 양칠성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

이번 세미나는 재인도네시아한인회가 후원하고, 한인니문화연구원이 협력했다.

자카르타= 한국일보 고찬유 특파원  
jutdae@hankookilbo.com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전날인 16일 국립인도네시아대(UI)에서 진행된 ‘독립 전쟁에서 한국인들의 역할’ 세미나 모습.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 300여명이 모였다.



## “한국 친구들, 버스 타고 자바 섬 횡단에 나서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2019.9.2(월)~7(토)간 자카르타에서 수라바야까지 약 1,000km에 이르는 구간을 한국 홍보버스를 타고 순회하는 종합 공공외교 프로젝트인 「뜨끈 꼬레

아 (뜨끈) 낭 자와\*」를 진행한다. 대사관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카르타, ◆찌르본, ◆브르브스, ◆솔로, ◆수라바야 등 자바 섬 소재 5개 주요 도시를 순서

대로 방문, 한국 관련 다양한 홍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Teman Korea (TeKo) Nang Jawa!」: 자바어로 “한국 친구, 자바에 오다!” 및 “자바로 오세요!” 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며, 자바인들이 자주 쓰는 일상어를 활용하여 자바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으로 선정

○ 대사관은 금년 10월 조코위 2기 정부 출범 및 11월 부산 개최 한-아세안 대화상대국 30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인도네시아 인구의 절반 이상인 1억 4천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자바 섬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는 한편, 금년도 대사관 중점 정책 중 하나인 ‘지방 속으로’의 일환으로, 지방 거점 도시들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아웃리치를 강화하기 위해 금번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 특히, 자카르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 및 각종 한국 관련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했던 지방 거주 인니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관광 및 한식을 홍보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는 부수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행사를 준비하였다.

금번 여정에는 인도네시아, 특히 자바 섬 밀레니얼 세대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진 장한솔(Korea Reomit) 유튜버가 동행하면서, 행사 관련 브이로

그(Vlog)를 함께 제작하여 인니 국민에 대한 SNS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범 대사가 탑승할 버스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국 관광 및 K-Food(한식 및 농식품) 홍보물이 전면에 부착되어 있으며, 먼저 8.31(토)~9.1(일)간 자카르타 시내를 투어한 후, 9.2(월)~7(토)간 트랜스 자바 고속도로와 각 도시를 누비면서 한국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식 홍보를 위해 외식업협회의회의 협조를 얻어 푸드트럭이 한국 홍보버스와 함께 이동하면서, 각종 행사시 떡볶이, 어묵 등 한국 음식 시식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금번 프로젝트는 대사관뿐만 아니라 문화원(KCC), 한국 관광공사(KTO)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인니 주재 공공 기관의 협업으로 추진되는 행사로서, 한국 홍보를 위한 팀 코리아(Team Korea) 공공외교 프로젝트로서도 큰 의의를 갖고 있다.

한편, 대사관은 뜨끈 낭 자와 사전 홍보를 위해 8.17(토)~9.7(토)간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해쉬태그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누구나동 행사포스터를 해쉬태그 #TeKoNangJawa, #TemanKoreaNangJawa, #loveTeKoNangJawa 와 함께 본인 계정에 포스팅하고, 대사관 등 참여 공공기관 계정(@koremb.idn)를 태그하여 참가할 수 있다. 9월2일 대사관은 문화원과 함께 롯데 아이스플리스에서 7월 한 달간 진행되었던 「뜨끈 낭 자와 로고 및 포스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롯데쇼핑 에비뉴 몰 로비에서 한국 홍보버스를 배경으로 출정식(Kick-off Ceremony)을 가진 후, 6일간의 여정에 오를 예정이다.





김아린(K2, Sinarmas World Academy)

2019.8.16

### 먹고 말테야!

74회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행사,  
Sinarmas World Academy에서 그루뽁  
따먹기 대회가 열리다.

#그루뽁이언제쯤떨어질까? #그루뽁은감이아니다  
#학교도직장만큼힘들군 #먹어도살로안감  
#진즉에좀내려주지



♥ 💬 📍 좋아요 1498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인뉴스로 연락주세요.  
A STAR IS BORN 코너에서 무엇이든 홍보해드립니다.  
자격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개인회원입니다.

**한인뉴스** 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 토지법(7)

(전호에서 계속)

## 23. CV(Commanditaire Venootschap/Persekutuan Komanditer/Limited Partnership)에게 건축권(Hak Guna Bangunan/HGB)을 제공하는 토지부장관의 업무처리 지시서

2019년 6월 29일 토지부장관은 CV에게 건축권(HGB) 제공에 관한 장관 회신(\*업무처리 지침서/Circular Letter) 제 02/SE-HT.02.01/VI/2019 호를 내려 CV에게 건축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발효시키고, 건축권 신청은 CV 명의로 하나 등기권리증서(Sertifikat Hak Atas Tanah)에는 CV의 파트너 명의를 등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업무처리 지침서는 토지법 제 19조에 위배된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지배적이나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상기 토지부장관의 업무처리 지침서를 분석한다.

### 23.1. 토지법 제 36 조

건축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a. 인도네시아 국민(\*국적 보유자)
- b. 인도네시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 23.2. CV(Commanditaire Venootschap)란 무엇인가?

CV는 상법 제19조에서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23.2.1. CV 설립은 한 사람 혹은 복수의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으며, 설립정관은 공정증서로 의무화하고 있다. 종전에는 CV는 법무부에 등기 의무가 없었으나 현재는 법무부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한 상호에 한 CV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23.2.2. CV의 파트너는 출자만 한 파트너와 출자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파트너로 법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를 Passive 파트너(Sekutu Pasif)라고 하며, 후자를 Active 파트너(Sekutu Aktif)라고 한다. Passive 파트너는 경영 참여권이 없으나, CV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 관련 서류에 서명 한 것이 발견되면 Active 파트너로 간주되며 Active 파트너와 마찬가지로 경영 결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무한책임을 져야한다.

23.2.3. CV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기명주식 혹은 무기명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주식 양도도 가능하다.

### 23.2. CV의 해산

Passive 파트너가 사망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 CV의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Active 파트너가 사망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CV는 해산하고 청산을 해야 한다.

### 23.3. 법인(Badan Hukum)

법인이란 자연인(사람)이외에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집단을 의미한다. 법인은 자연인이 지니고 있는 희로애락의 감정 이외의 모든 권

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인도네시아 실정법상으로는 어디에도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개인과 집단의 재산 분리를 법인과 비법인의 가장 확실한 특징으로 꼽고 있다. 공법인(국가, 지방자치정부)과 사법인(주식회사, 협동조합,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으로 구분하며,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합체인 단체이며 그 인적요소로서 사원이 있어야 하며 최고의 의사기관으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활동을 한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을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독립시켜 이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구성된 법인이다. 재단법인은 비영리사업 목적으로 하는 것만 인정된다. 사법인은 정부로부터 법인자격을 취득해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23.4. 법의 원칙

- 23.4.1. 확실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 23.4.2. 실정법만이 법적근거이다.
- 23.4.3. 법의 폐기 혹은 개정은 상위법 혹은 동위법으로만 가능하다.
- 23.4.4.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 23.4.5.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한다.
- 23.4.6.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 23.4.7. 한 법은 한 가지 사항만 규정한다.

#### 23.5. 법의 서열(우선순위)

23.5.1. 헌법(Undang-Undang Dasar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45)

23.5.2. 국민협의회 결정서(Ketetapan 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23.5.3. 법률/비상조치령(Undang-Undang/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23.5.4.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23.5.5. 대통령령(Peraturan Presiden)

23.5.6. 주 조례(Peraturan Daerah Provinsi)

23.5.7. 시/군 조례(Peraturan Daerah Kabupaten/Kota)

#### 23.6. CV는 법인인가?

CV는 개인의 재산과 CV의 재산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CV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CV도 법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법학자도 있다. 필자는 CV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 23.7. 의견

CV에게 건축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2019년 6월 29일 자 CV에게 건축권(HGB) 제공에 관한 토지부장관 업무처리 지침서 제 02/SE-HT.02.01/VI/2019 호는 인도네시아 국민 및 인도네시아 법에 의해 설립되고 인도네시아 영토내에 법적인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만이 건축권(HGB)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토지법 제 36조를 위배했다고 본다.

## 제 10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공모

2010년 첫 씨앗을 뿌린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이 올해로 10회를 맞이합니다. 한인동포사회에서 가장 유서 깊은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하여 전도유망한 작가와 문예인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국어로 이국의 정서를 풀어내는 '인도네시아 이야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주제 : 인도네시아 이야기
2. 원고 모집 기간 : 2019년 8월 1일~9월 20일
3. 원고 작성 기준 : 산문 부문 A4 3쪽~5쪽 / 시 부문 2편 이상
  - 순수 창작물(발표되었거나 표절 작품은 당선외 취소 됨)
  - 맑은 고딕, 10 포인트, 행간 160%로 작성
4. 대상 : 학생(만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일반인(성인)
5. 보내실 곳 : ikcskr@gmail.com과 indonesiastory@hotmail.com로 동시 송부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표기
6. 시상식 및 문화행사 : 추후공지
7. 등단 기회부여 : 성인부 대상 (한국문예지)
8. 시상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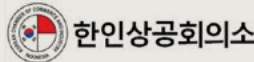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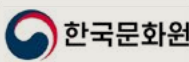
상명	성인부		학생부		시상내역
	인원	시 상	인원	시 상	
대상	1	주인니대한민국대사상	1	주ASEAN 대한민국대표부대사상	상장과 부상
최우수상	1	재인니한인회장상	1	재인니상공회의소회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	1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장상	1	KOICA 소장상	상장과 부상
우수상	1	한인니문화연구원장상	1	인문창작클럽회장상	상장과 부상
특별상	1	한인기업 PT. TAEWON INDONESIA 상	1	인니기업 GRAN MELIA 상	상장과 부상
특별상	1	인니갤러리 EDWIN 상	1	인니갤러리 Widayanto 상	상장과 부상
장려상	2	한인니문화연구원상	2	한인니문화연구원상	상장과 부상

\* 유럽의 아시아 지배를 마감하게 한 책 『막스하벨라르』의 저자의 이름을 딴 <물타폴리 상>은 인권을 주제로 한 뛰어난 작품에 중복시상 됩니다. \* 시상내역은 바뀔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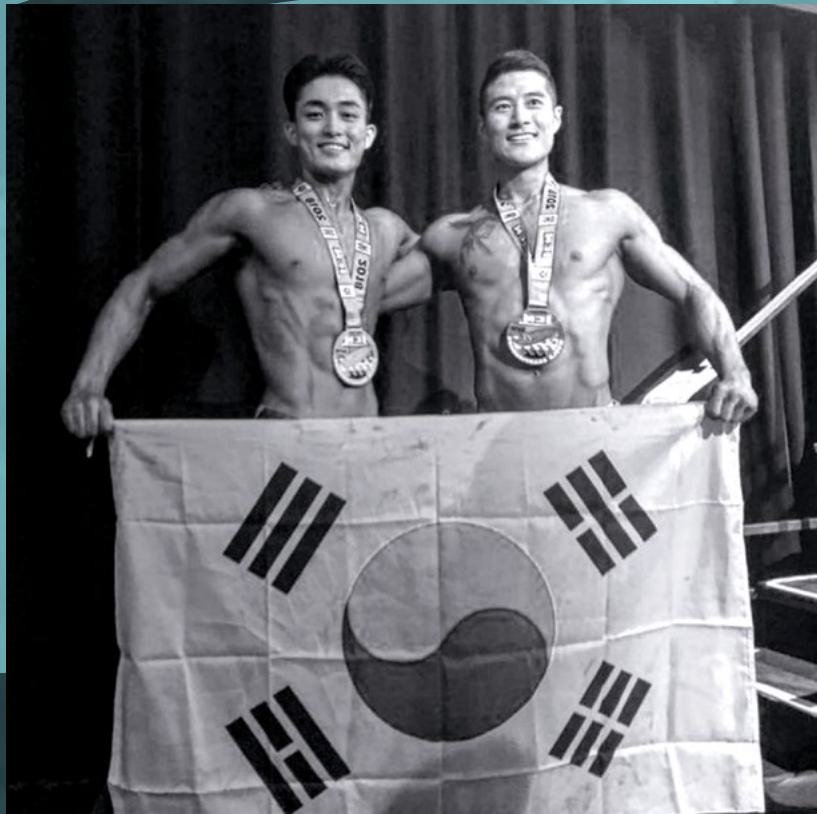
문의처 : 0816-190-9976 / 081-875-6217

sagongjkt@gmail.com / jemmachae@hotmail.com

후원:



## 우리는 'Team Fit Bersama'



### 1 IGW 2018 WORLD CHAMPIONSHIPS -Gold Coast, Australia

- **김승욱** - 일명 김할배 (우)
  - Street Model - 1위
  - Muscle Model - 2위
  - Fitness Model open - 2위
- **박남** - 일명 박사슴 (좌)
  - Fitness Model open - 1위
  - Fitness Model overall champion
  - ICN Fitness model world pro

“ 인도네시아 교민사회에 건강한 피트니스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2년째 운동하는 모임, 'TeamFit Bersama' 를 운영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교민들, 특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운동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유일무이한 콘텐츠'를 만들어 '즐기며 운동하는 문화 전파'에 오늘도 열일 중!

- 창업 준비 중인 청년 헬스 트레이너들 -

## 2019 K-Pop 아카데미와 국악강좌 작품발표회 성공리 개최



미니콘서트 참가자 단체사진



2019 라일락 국악강좌 수강생들의 국악공연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천영평)은 지난 6월부터 K-POP 및 국악 전문가를 한국에서 초청하여 주재국민 및 동포들을 대상으로 ‘2019 K-Pop 아카데미’, ‘2019 국악아카데미’ 및 ‘2019 라일락 국악강좌’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8월 25일(일) 수료를 맞이하여 수강생들의 작품발표회인 ‘미니콘서트’를 롯데에비뉴에서 개최했다.

이미 다수의 공연을 통해 현지 태권도 팬들의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인도네시아 태권도 퍼포먼스 팀 ‘N-Lions’가 아이돌그룹 노래에 맞춘 화려한 태권도 기술로 무대의 막을 열었다.

본 행사의 첫 번째 순서로는 ‘2019 K-Pop 아카데미’ 수강생 댄스 초·중급 각3팀과 보컬 초·중급 각4팀이 한 달여 동안 배운 실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시간이 펼쳐졌다. 2019 K-Pop 아카데미는 7.22.(월)~8.25.(일) 동안 현직 방탄소년단 ‘IDOL’ 활동과 다수의 유명 아이돌의 안무를 맡고있는 박경렬 안무가를 댄스반 강사로, 강예은 보컬코치를 보컬반 강사로 각각 초빙해 90여명의 수강생들에게 K-Pop의 매력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다.

댄스반 수강생들은 방탄소년단의 “Boy With Luv”, 유노윤호의 “Follow” 등에 맞춘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보컬반 수강생들도 블랙핑크의 “Stay”, 아이콘의 “Love Scenario”, 크러쉬의 “Beautiful” 등 케이팝 인기곡을 열창했

는데, 떨리는 기색 하나 없이 여유롭게 무대를 즐기는 모습으로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다음 순서로는 ‘가야금 병창 1인자’로 불리는 국립국악원 위희경 단원을 초청강사로한 ‘2019 국악아카데미’ 수강생 32명의 진도아리랑, 단가, 호남가, 강강술래 연주가 이어졌는데, 인도네시아 수강생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가야금을 연주하며 창을 부르는 모습에 지나가던 관객들도 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쉽게 포착할 수 있었다.

또 부산문화재단과의 협력으로 국악그룹 ‘라일락(Lilac)’을 초청해 7.29.(월)~8.14.(수)동안 개최한 ‘2019 라일락 국악강좌’ 수강생들도 가야금, 해금, 소금으로 오나라, 홀로아리랑, 그리고 케이팝 ‘사랑을 했다’를 국악으로 재해석한 곡들을 들려주며 관객들에게 국악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는 순서로는 가수 맥케이가 특별 라이브무대로 열기를 더하고, 마지막 순서로 수강생들이 K-Pop 아카데미 강사로부터 수료증을 전달받으며 미니콘서트를 성공리에 마쳤다.

문화원장은 “한국전통문화와 K-Pop에 보여주는 인도네시아 시민들의 관심에 많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한류문화를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제공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네 건강 지킴이  
약사 (Apoteker) Reza Grazia(27세)

K-Drama 넘넘~ 좋아요. [태양의 후예]를 몇번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송송커플이 헤어졌다면서요. 다시 관계가 좋아져 재결합해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나는 아빠 고향인 빠뿌아 마노파리 출신인데 요즘 그곳에 폭동이 일어나 걱정이네요. 대학은 자카르타로 유학해 지금 이곳이 첫 직장입니다. 약학 전공자는 여자가 80% 이고 졸업 후 나처럼 약사, 제약회사, 관련 산업 및 정부기관 등으로 대부분 취업하지요. 많지 않은 월급이지만 몇년 열심히 일해 돈이 좀 모이면 하고픈 공부를 마치고 교수가 되고 싶어요.

많이 찾는 약이요?

피부약이 첫번째이고 위장약, 콜레스트롤, 통풍 그리고 고혈압 순으로 많이 팔립니다. 나는 한달에 사흘만 쉬고 Asisten apoteker 와 교대로 휴일없이 근무하며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자 친구는... 있어요. 지금 공무원인데 결혼을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신혼여행을 한국으로 가라고요? 너~무 좋지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아멘 호호호~

- 한인뉴스 편집국 -

## 330회 문화탐방 <인도네시아 한인사 100년 기획탐방> 1

오는 9월 20일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한국인으로 3.1운동 망명객인 장운원 선생이 자바 땅에 첫발을 디딘지 99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의 흔적을 찾으며 오랑꼬레아 100년의 뿌리를 재발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도에 타오른 100년의 열망에 동참해 보세요.

☆ 한인 100년사 편찬을 응원합니다.

일시: 2019년 9월 21일(토) 8:00-16:00

집결: 8:00 Pondok Indah, Tanah Kusir Cemetery 주차장

탐방지: 묘지, 아트마자야 대학교, 국방부 청사, 대성당, (최초의 우체국), (갈란 라덴살레), 살렘바 형무소, (찌끼니 우체국), 멘땡 자택, 외

회비: Rp 400,000 (비회원Rp 450,000) (티타임 1~2회, 점심식사, 차량대여)

접수: 밴드댓글: <https://band.us/@ikcs>

SMS/KT: 0838-7834-7811, 0816-190-9976

Email: [ikcskr@gmail.com](mailto:ikcskr@gmail.com)

# 유치원 프로그램

ACG School Jakarta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유지하는 활동과 더불어 최고의 학습시작을 제공합니다. 8월부터 유치원2세반을 제공 할 수 있게되어 기쁘며,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가르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62-21-2978 0200 | [acgjkt@acgedu.com](mailto:acgjkt@acgedu.com)

[jakarta.acgedu.com](http://jakarta.acgedu.com)

Jl Warung Jati Barat (Taman Margasatwa) no 19, Jati Padang,  
Pasar Minggu, South Jakarta 12540



## 2019 임원산조금 납부명단

기준 : 2019.7.31.~ 8.30.

번호	성명 및 직책	회사명	금액	
			루피아	달러
74	김경준 이사	PT. SINAR KENCANA ABADI INDONESIA	14,000,000	
75	유주완 이사	PT. FEEL BUY INDONESIA	14,000,000	
76	강병찬 부회장	PT. GLOBAL INDOREKSA ASIA	70,500,000	
77	김삼두 이사	PT. CIPTA KREASI NADA		1,000
78	강희중 자문위원	PT. SUNG TECHNOLOGY		1,000
79	신규태 고문	PT. INDO SUNG IL JAYA		5,000
80	신기업 명예고문	PT. HANINDO EXPRESS UTAMA JAYA	70,500,000	
81	노예범 이사	PT. SAM PUTRA INTI	14,000,000	
82	김문수 이사	PT. QUTY KARUNIA	14,000,000	
83	강형구 이사	PT. MERITZ KORINDO INSURANCE	14,000,000	
84	이서연 이사	PT. SEYANG INDONESIA	14,000,000	
85	이승민 자문위원	PT. YSM & PATNERS	14,000,000	
86	이세호 이사	PT. GORI GLOBAL INDONESIA	14,183,000	
87	홍종서 이사	PT. ARION TECH INDONESIA	14,183,000	
88	김서경 이사	PT. ACCENTUATES	14,183,000	
89	김영울 이사	PT. SUNG CHANG INDONESIA	14,183,000	
90	안창섭 이사	PT. PETRASAKTI MADYATAMA	14,183,000	
91	이강현 이사	PT. SAMSUNG ELECTRONIC INDONESIA	14,183,000	
92	최원혁 이사	PT. HILON FELT	14,183,000	
93	표기훈 이사	PT. HIT	14,183,000	
94	성예식 이사	PT. H1-LOGIX	14,183,000	
95	조용재 이사	PT. FOOD KOREA INDONESIA	14,183,000	
96	이지현 이사	PT. ZIMMOAH MARINE TRANS	14,183,000	
97	황의상 이사	PT. SEPULUH SUMBER ANUGERAH	14,183,000	
98	백인현 이사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4,000,000	

8월호 73번에 이어 게재

## 2019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 기준 : 납부일순

번호	성명	금액(IDR)	납입연도	번호	성명	금액(IDR)	납입연도
116	정사무엘	300,000		124	김문수	600,000	2018-2019
117	김경준	300,000		125	강형구	300,000	
118	유주완	300,000		126	권영선	300,000	
119	조영완	300,000		127	이서연	300,000	
120	정재윤	300,000		128	이승민	300,000	
121	신규태	300,000		129	태용호	300,000	
122	신기업	300,000		130	황의상	300,000	
123	노예범	300,000		131	백인현	300,000	

8월호 115번에 이어 게재



## 아들아~ 일어나

사춘기 아들 손 잡고 '광복절 기념 5km 마라톤 · 걷기 대회' 에 참가  
대한 독립 만세~

엄마 간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노니!!  
사춘기 아들 승헌이(ACS Jakarta G5)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새벽 4시에 마  
라톤장으로 향한 부모의 마음이 조금이라  
도 너에게 닿았기를... 사랑한다, 아들!  
다 포기하지 마~ 또 다른 모습에 나 살기  
위해 몸부림 치는걸  
힘든 시기 지나면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갈  
거야

[Feat. 엄마(조현영), 아빠(박성욱),남동  
생(박승우)]



## 한-인니 광복절 기념 마라톤 - 걷기대회(Saranghae Merdeka 5K) 후원내역

번호	후원사 및 단체	성명 및 직위	금액 (IDR)
1	KCC (한국문화원) * 공연비용 제 지급	천영평 문화원장	50,000,000
2	KOEXIM MANDIRI FINANCE (수출입은행)	조용민 사장	14,000,000
3	OK BANK INDONESIA (오케이저축은행)	임철진 은행장	50,000,000
4	KOCHAM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송창근 회장	50,000,000
5	IBK 기업은행	박주용 은행장	100,000,000
6	KSAI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	강희중 회장	30,000,000
7	BANK KEB HANA INDONESIA (KEB하나은행)	박성호 은행장	50,000,000
8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우리소다라은행)	최정훈 은행장	21,000,000
9	PT. AITI INVESTMENT	김희년 대표	100,000,000

번호	후원사	물품 내역
1	PT. LOTTE MART INDONESIA	생수 330ml 2,000병
2	PT. LEO KORINSIA (이종현 대표)	인형 250개
3	PT. HEONZ ROYAL JAYA (이정호 대표)	삼양 불닭볶음면 50박스(400팩)



**ICHTHUS SCHOOL**

PRIMARY | SECONDARY | PRE-UNIVERSITY

**JOIN OUR ICHTHUS SCHOLARSHIP PROGRAM**

**OPEN HOUSE**  
 West Campus Sat, 5 Oct 2019  
 South Campus Fri, 8 Nov 2019

Ichthus Schools f  
 Ichthus School

West Campus T: +6221 581 2228  
 South Campus T: +6221 7590 8850

www.ichthusschool.com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 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 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 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짜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 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 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 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 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 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 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 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 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 학교 (JIS)	750 3640
북국제 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 학교 (AIS)	782 1141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한국인 직원 구인 / 구직 적극 지원  
아래 주소로 이력서 송부 바랍니다

# ✓ 한국인 인재 추천..

각부문 신입 / 경력 직원  
(현지 대학 졸업자 우대)

Recruitment Service



새로나자야  
**OSSELNAJAYA**

Korea Desk  
0878-8042-9794  
021-572-7214  
hwangyh@os-selnajaya.com  
www.os-selnajaya.com/en

domestic : Karawang, Cikarang, Bandung, Surabaya, Cibubur, Lembang, Jakarta : 19th fl. Mid Plaza II, Jl. Jend. Sudirman Kav 10-11 Jakarta, Indonesia  
overseas : Vietnam, Malaysia, Singapore, Cambodia, China, Japan, HK, India, Australia, Germany, Belgium, Poland, UK, Chile, Peru, Brazil, Colombia, Ecuador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십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탁)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58	7650 6040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소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visa.oromchris@gmail.com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woori**

#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

**URI** TOUR & TRAVEL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Katalin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www.doowang.net

##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가슴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sup>th</sup>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l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 로데미와 함께하면 증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RODEM TOUR**

Tel:(021) 4587 8833 Fax:(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근)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맷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킴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	-------------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형사 · 민사 · 세무 · 투자 · 국적

김종성(변호사/ 대표Partner): UI대 법대졸, UI대 법대 대학원졸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차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교민여러분과 25년을 함께 해 온  
가구 인테리어 전문회사



**로만인테리어**

사무실/아파트/주택/매장/업소  
공장/기숙사  
가구, 키친세트, 인테리어  
각종 리노베이션 상담

Showroom/Office:  
Jl. RS Fatmawati No. 21A, Cipete Jakarta Selatan  
Tel: (021) 766 2519 한국인직통 0811-847-699  
카톡 ID: limbs521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김군**

**고기고기**  
밴드(김군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어떤 모양을 통해  
목적한 기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디자인의 본질 아닐까요?  
디자인이라면 뭐든지 해결해드립니다!

**PT.EOK ECO INDONESIA**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경관조명  
간판**

- 디자인 / 설계 / 제작 / 시공 -  
Tel. 021-7919-2426  
M. 0852-8511-3888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감달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짜까랑) (땅그랑)	2909	3454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아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너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짜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 <b>신문</b>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b>안경원</b>		
시티안경원	726	5009
● <b>여행사</b>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18	423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람)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b>인니어통역/번역</b>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b>의료기</b>		
PT. CGM INDONESIA	0811	9593111
● <b>인터넷</b>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b>인테리어</b>		
AEGIS BLIND	2943	3876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하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짜카람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짜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름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보찌까랑)	0813	1415 7581
---------------	------	-----------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보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썬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1	888 9609

dailyindonesia.co.kr

레일링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KANA 가나 RESTOLOUNGE

가나의 Special MENU

가나의 복요리 전문    가나의 Delivery Menu 도시락 전문    가나의 Catering Service 케터링 전문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1 Jakarta  
Phone 2520077, 5710909  
(KIM MI YOUNG 0811 918 132)

#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세드라아트스쿨(리브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98 6112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너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DREMLAND TOUR 745 1961  
 KOURUS TOUR 744 72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L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ANUR) 918 1888  
 부가 805 1212  
 한일관 727 250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BALI TEGEHE AGUNG 298 643  
 SUN JEWELLERY 761 537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동 (지역번호 022)

반동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동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NITAKA TOKYO**  
hair salon

20% First Time for Hamin Readers

**Highlights**

- 숙련 된 일본인 디자이너
- 영어, 인니어, 일본어로 소통
- 메이크업 및 네일 서비스
- 두피 치료 및 탈모 감소 테라피
- 저자극 염색약 사용
- 고품질 일본 제품
- 남자 | 여성 | 어린이 | 특별할인

+62 21727 88 787  
 +62 821 2300 3809  
 @nitaka.tokyo www.nitakatokyo.com  
 2<sup>nd</sup> Floor  
 Jl Gunawarman No 71  
 (near Senopati)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2019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 & 집행부>

박형동 회장/한바패 회장  
 채영애 감사  
 사공경 고문  
 강희중 자문  
 신돈철 자문  
 이수진 수석 부회장  
 허민경 사무국장/스트링 오케스트라  
 정방울 사무차장/한인무용단  
 김경애 전시 수석부회장/한지공예  
 김혜정 공연 수석부회장/JKCC 어린  
 이 합창단

정재익 전시부회장/서협  
 이은수 전시부회장/미협  
 김일순 공연부회장/한바패  
 박의태 공연부회장/색소폰  
 박정욱 공연부회장/극동방송 합창단  
 박준희 공연부회장/아버지 앙상블

<17개 소속 단체장>

극동방송 합창단 단장 : 신정일 0811 924 328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0812 8178 050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0878 5480 4815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서예협회장 : 송판원 0816 1840 762  
 스트링오케스트라단장 : 허민경 0812 1316 2064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 채영애 0816 745 384  
 아버지앙상블단장 : 김종규 0815 1059 8392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김영희 0815 181 3102  
 월화차 회장 :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 채영애 0816 745 384  
 한국무용단 단장 : 정방울 0811 1636 210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한지공예 단장 : 김경애 0815 1941 1756



## 편집 후기

---

### 편집장 홍석영

우리는 일반 일본인들의 차분함, 준법정신, 대를 이어 장인이 되는 유업을 받는 정신을 좋게 평가했었습니다. 각종 메뉴얼에 따라 행동하는 절도 있어 보이는 대처가 오감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와는 참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메뉴얼이 틀렸을 때 그들이 무엇에 의지하게 될런지 궁금합니다.

우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대하는 업데이트된 새 메뉴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것이 필요한 때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역할입니다.

현재의 상황도 시간의 맥락이 있고, 새로운 모델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기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듯이 힘이 들고 불편한 것은 새로운 포지셔닝을 위한 과정입니다.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의 시작도 일본경찰을 피해 이곳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 장운원이었음을 생각하면 일본과 우리가 정말 많은 것에 얽혀져 있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

[한인외 외비 납부 안내]

##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  
딩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한인  
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  
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케어)과 연계  
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  
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 회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ACS Jakarta G3 한예성

송편을 나누는 토끼처럼...  
모든 사람이 한가위를 맞아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